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正淑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 연구

—현상윤·양건식 소설을 중심으로—

CRITICAL REALISM NOVELS OF 1910S

1995 年 8 月

漢城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現代文學專攻

鄭 貞 淑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正淑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 연구
CRITICAL REALISM NOVELS OF 1910S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5 年 8 月

漢城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現代文學專攻

鄭 貞 淑

鄭貞淑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1995 年 8 月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漢城大學校大學院

국 문 요 약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 연구

—현상윤·양건식 소설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당대 소설사 전개 과정을 1910년대라는 시대의 전체적 발전 방향 안에서 규명코자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둔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이 당대 소설을 시대와 관련지어 논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본 논문은 무엇보다 역사·사회적 급변에 따른 혼란 및 그로 인한 전대 서사체의 쇠퇴와 함께 신문·잡지 매체로 인해 1910년대 단편소설이 형성되게 된 배경을 살펴 보았다.

이 시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이광수·주요한 등 자료 발굴이 용이한 작가에 한정되어 있는 데다 이러한 작가들의 개별 작가연구도 아직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작품연구도 미미한 상태며, 1910년대 초기에 다양하게 나타난 각 작품의 장르적 특수성도 아직 만족할 만하게 해명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역사학자로만 알려져 있던 현상윤의 단편소설 자료가 발굴되고, 우리 학계에 ‘중국문학의 傳信者’ ‘中華劇 연구자요 번역자’로서 소개되었던 양건식이 1910년대에 누구 못지않게 단편소설을 의욕적으로 발표한 소설가였던 점에 주목했다. 객관적 자기 인식과 현실 비판 소설의 맹아로서 식민지 지식인의 정신적 방황과 고립감을 비판적 사실주의의 창작방법을 구현한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1910년대 문학이 지닌 개별성 및 차별성이 어느 정도 해명되기 시작함으로 인해 1900년대 신소설로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의 우리 소설사를 유기적이고 필연적인 맥락에서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역사적으로 국권상실이라는 암담한 시대사회적 여건이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고, 또 이 시기의 단편들 모두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절망적인 현실을 寫實的으로 수용하면서 개인의 내면세계로 시야를 돌렸던 사실을 밝혔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현상윤의 「뽕박」이나 양건식의 「슬픈 모순」을 통해 지식인의 고뇌와 실천문제를 다루었다. 나아가 그들의 초기작품에서 식민지 조선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주시하였다.

이렇게 1910년대 단편소설들은 전대와는 구분되면서 1920년대 단편들과 연결되어 1920년대 이후 단편소설들의 전통내적 흐름을 잡아 주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 이후 정립되기 시작한 단편소설들이 어떠한 방황과 모색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해명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1910년대에 발생한 비판적 사실주의의 문학은 20년대 전반기에 발전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여기에서 1910년대 소설이 1920년대의 본격적인 근대소설로 나아가는 데 과도기적 역할을 했다고 가정, 두 시기의 소설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 목 차 —

국 문 요 약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 연구 검토	2
3. 연구방법 및 방향	6
II. 1910년대 시대적 상황과 단편소설 형성의 배경	10
1. 자본체제 모순과 식민지 상황	10
2. 신지식층의 형성	13
3. 비판적 사실주의의 개념규정	17
III.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	22
1. 현상윤의 소설	22
(1) 생애와 사상적 업적	22
(2) 현상윤의 문학관	24
(3) 현상윤의 소설	27
2. 양건식의 소설	35
(1) 생애와 거사불교운동	35
(2) 양건식의 문학관	39
(3) 양건식의 문학세계	41
IV.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의 의의	61
1.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 소설의 문학적 가치	61
2. 1920년대 소설과의 연계	68
V. 결 론	72

참고문헌

영문요약

I. 서론

1. 문제제기

주지하다시피 1910년대는 한일합방으로부터 시작하여 3·1운동까지의 기간으로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해 정신·문화적인 공백기였다. 이 때문에 문학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근대 초기 정신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애국계몽기(1905-1910)와 3·1운동 이후의 문학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는 우리 소설사에서 여전히 '독자적 의미를 갖지 못한 공백기'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우리 근대 문학형성 과정의 연속성과 그 지향의미를 규명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가져왔다.

1910년을 기점으로 한 문학의 변화는 충분히 논의될 만한 근거를 가진다. 즉 사회와 문학이 일대일 대응의 반영론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일정한 상용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국권상실이라는 대내외적 변화로 인한 무정부 사회의 문학은 분명히 전시대와 구분되어 드러나는 변모양상에 초점을 맞춰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요즘 몇몇 연구자¹⁾들에 의해 이 시기의 문학작품들이 주목받게 되므로써 근대 형성기의 문학사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시기의 소설은 대략 단행본 신소설, 신문소재 단편, 잡지소재 단편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이 가운데 신소설은 이미 유형화·통속화에 빠져버려 前시기의 긍정성을 잃고 문화적·정신적 주도성을 상실한다

1) 양문규, 「1910년대 한국소설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1990.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1990.

김현실, 「한국근대단편소설론」, 공동체, 1991.

한점돌, 「1910년대 한국소설의 정신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1992.

신소설이 '위안으로서의 문학'에 머물러 버리고 만 데 반하여, 신문 잡지를 통해 발표된 단편소설들은 다양한 지향을 통해 새로운 이념적 지표와 정신운동을 표출하고 있다²⁾.

우선 1910년대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일체의 힘을 거세당한 시기이다. 지식인들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시기였으며, 경제적·문화적·언론적 측면에서도 친일적 성격의 것이나 종교적 성격의 것이 아니고는 발을 붙일 수 없는 시기였다³⁾. 1910년대는 아직 자본주의의 초기단계로 여러 면에서 모순과 미숙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역사철학적으로 볼 때도 장편 소설에 비하여 단편소설은 어떤 사회의 총체성의 형상화가 '아직 불가능' 하거나 또는 '더 이상 불가능' 할 때 쓰여진다.

1910년대 단편소설이 많이 출현했던 것은 발표 매체의 특성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역사적 요인도 작용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작품 중에서 <학지광>이나 <청춘>, <매일신보> 소재의 작품이 그러한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문학사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1920년대와의 맥락을 염두에 두어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기존 연구 검토

1910년대 단편소설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임화의 연구⁴⁾ 이래 「무정」이

2) 최근 1910년대를 연구하는 논자들이 모두 단편소설을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 이 시기의 정신적 궤적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이 시기의 소설을 게재하고 있는 신문·잡지는 국내 유일의 한국어 신문인 「매일신보」와 최남선·이광수등이 창간했던 「청춘」 그리고 일본 유학생 친목 회의 기관지였던 「학지광」에 불과하다.

4) 임화, 「조선문학사론 서론」 12『조선신문학사』, 1940, 조선일보, 인문평론, 형문문화사, 영인본, 1976.

한국근대소설의 출발점이었으며, 1920년대의 본격적인 근대문학으로 넘어가는 일매개적 계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후의 1910년대 단편소설에 관한 연구 역시 1910년대 단편소설에서 장편 「무정」을 배태시킨 단초를 찾아 낼 수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였고⁵⁾, 사실 이때까지는 1910년대가 지닌 특성이 해명될 수 없었던 바에 여전히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공백기로 남아 있었다.

1910년대 소설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은 현상윤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면서 부터이다. 김기현과 김학동⁶⁾은 현상윤의 단편소설을 발굴해서 그의 소설이 근대적 단편의 초기양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이 소설에 대한 논의는 보다 확대되어 이재선에 의해 1920년대 단편소설의 전단계로 현상윤, 몽몽, 안국선 등의 몇몇 1910년대 단편소설이 언급되고 있으며⁷⁾, 20세기 초반의 단편 연구 일부로써 현상윤, 안국선, 이인직의 단편들이 분석된 이동길의 연구가 첨가되었다⁸⁾. 그밖에 현상윤의 단편만 다룬 것으로는 최시한의 논고와 김현실의 논고가 있다⁹⁾. 그리고 개별에 대한 연구로 주종연의 「한국근대

5) 송민호, 「춘원의 초기 단편고」, 현대문학, 통권181호, 1961.

「춘원의 습작기 작품과 단편 '무정」, 국어국문학 25집, 1962.

윤홍로, 「춘원작품 재평가」, 「한국문학의 해석학적 연구」, 일지사, 1976.

이주형, 「이광수의 초기 단편소설 연구」, 어문학39집, 1980.

이정숙, 「춘원 초기 단편 소설에 대한 일고찰」-1910년대 발표작을 중심으로- 민족사상제2집, 한성대 민족사상연구소, 1984.

한점돌, 「춘원초기단편의 소설사적 의의」, 호서대학논문집 4집, 1985.

6) 김기현, 「현상윤의 단편소설」, 문학과 지성, 1972겨울호.

김학동, 「소성 현상윤론」, 어문학27집, 1972.

최시한, 「현상윤의 장르의식」, 서강어문3집, 1983.

7)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5.

8) 이동길, 「20세기초반의 단편소설연구」,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1980.

9) 최시한, 「현상윤의 장르의식」, 서강어문 3, 서강어문학회, 1983.

김현실, 「현상윤의 단편소설연구」, 국어국문학 93, 국어국문학회, 1985.

단편소설연구」¹⁰⁾가 있다. 이들 연구는 무엇보다 자료의 새로운 발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 그 작품들은 단편소설의 준비단계와 모색단계로 나누어 주제나 인물의 새로워진 측면 및 서술구조, 시점등의 기법적 측면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분석했으며 단편소설의 발달의 원인으로 신문, 잡지, 현상문에 등발생적 측면의 연구까지 첨가함으로써 이 시기의 단편연구로서의 최초의 종합적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연속된 연구¹¹⁾에서는 「고전편」을 통해 한국단편소설 형성의 통시적 고찰을 꾀하고 있다. 주종연의 연구를 보완한 것으로 김현실의 연구¹²⁾를 들 수 있는데, 김현실은 1910년대 단편소설들을 기존 서사양식에 밀착하여 점진적인 변용을 시도한 것과 새로운 양식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누어 보면서 새로운 단편소설 양식의 시도로 행위중심 단편소설과 내면지향 단편소설로 구별하고, 이들이 1920년대 단편소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려 하였다. 또 주종연의 연구를 다른 측면에서 보완한 것으로는 1910년대 단편소설 중 유학생 작가들의 작품 20편을 대상으로 한 이동하의 작가의식 연구¹³⁾가 있다.

그 이외에도 1910년대 문학에 의의를 부여한 문학사적 연구로 「한국문학통사」¹⁴⁾가 있다. 여기서는 기존 문학사와는 달리 1910년대의 소설동향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현상윤의 단편, 이광수의 소설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기존 문학사의 편협성으로부터 탈피한다. 이 시기의 소설을 ‘방황하는 세대의 소설’이라 명명하고, 작가의식과 현실의식, 즉 역사·사회적 의미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상윤과 이광수를 비교하여 현상윤의 의식세계가 보다 건실함을 포착하고, 옹모소설 중 유학생 작가들과는 다소 다른 국내 학생 작가들의 작품에도

10) 주종연, 「한국근대단편소설연구」, 형성출판사, 1979.

11) 주종연, 「한국소설의 형성」, 집문당, 1987.

12) 김현실, 「한국근대단편소설론」, 공동체, 1991.

13) 이동하, 「1910년대 단편소설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1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6.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 역시 일반적으로 문학사가 갖고 있는 한계인 개별 작품의 분석이 미흡하고 뚜렷이 방법론이 제기되지 않아 한계점이 지적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개의 인물로 연구되었던 몽몽과 진학문을 증명한 김학동의 논의가 첨가되었고, 문학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양건식의 작품들이 새로이 발굴¹⁵⁾되어 이광수, 현상윤에 이어 초기 근대단편 소설의 정립에 미친 중요한 작가로 양건식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1910년대 문학을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前단계로 규정하여 소설사의 발전과정에 있어 1910년대 문학이 지닌 성격을 문학사의 연속성을 해명하려 한 북한에서의 문학연구¹⁶⁾가 있는데, 이 연구 성과는 북한에서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사실주의 발생·발전논쟁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논쟁의 결과 북한 학계에서는 1910년대를 비판적 사실주의의 출발점으로 설정한다는 데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양건식의 「슬픈 모순」, 걱정업슬이의 「절교의 서한」, 현상윤의 「한의 일생」을 비판적 사실주의를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이들 문학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고 본다. 이 논의에 촉발되어 일어난 국내 학계 몇몇 연구¹⁷⁾가 있기도 하다. 위에서 검토한 연구성과에 의해 1910년대 문학의 개별성과 차별성이 어느 정도 해명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1900년대 문학이

15) 박재연·김영복, 「양백화 문집」, 지양사, 1988.

1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실,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 발생·발전 논쟁」, 사계절, 1989.

이동수, 「우리나라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 출판사, 1988.

17) 고재석, 「백화 양건식 문학연구 I」, 한국문학연구12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9.

양문규, 「『슬픈모순』과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의 문제」, 창작과 비평, 1990년 봄호.

양문규, 「1910년대 소설」, 한국근대문학연구입문, 한길사, 1990.

신소설로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의 우리의 소설사를 연결시켜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방향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되 단편소설이 1910년대의 역사·사회적 상황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부상·형성하게 된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발전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논의에 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1910년대에 발표된 단편들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단편을 좀더 서사에 가까운 것과 새로운 양식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유형으로 대별하고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적 단편소설 양식에 접근해 나갔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3장에서는 기존의 소설사가 이광수를 내세워 1910년대를 한국근대문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현상윤의 의식세계 또한 이광수 못지 않았고 단편이라는 소설형식에 있어서 선구적 공적은 무시할 수 없기에 그의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소설사적 위치도 확인해 보는 기회로 삼기로 한다. 그리고 북한 학계에서는 양건식의 「슬픈 모순」을 들어 비판적 사실주의의 한 성과로 보았던 사실이 있고, 그 여파로 우리 학계에서도 양건식에 관한 연구가 몇몇 논자에 의해서 행해져 왔다. 따라서 이 시기의 소설들을 통해 남북 양쪽의 연구성과 및 한계를 지양·종합할 필요성을 갖고 살펴볼 것이다.

사실주의란 보통 당대의 사회현실의 객관적 묘사라고 정의되지만 이 말처럼 상대적인 말은 없는 것 같다. 객관적이란 말 자체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뒤집으면 규범적인 사실주의란 없다는 말도 된다. 그러나 사실주의의 정의가 상대적이고 변증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현상윤과

양건식을 사실주의 작가로 보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현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소재 선택에 의식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체개발에 누구보다 신경을 썼던 까닭이다. 그리고 그 현실의 진실 내지 전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결말방식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작 사실주의 기법에 관계된 부수적인 측면인지도 모른다.

본 논문에서 현상윤과 양건식을 1910년대의 선구적인 사실주의 작가로 평가하는 것은 이런 기법보다는 비록 완성도에서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들이 다른 누구보다 한 시대와 사회의 인식체계와 도덕적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지식인의 허위의식과 고민을 즐겨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1910~20년대초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즉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모순이 점차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개인과 사회와의 대립이 극명하게 발생하게 되며 개인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사회적 현실의 생활 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식·비판하는 성향을 띠었던 때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소설들이 현실비판에서 어떠한 양상과 성과를 드러내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양건식과 현상윤의 소설을 분석·고찰해봄으로써 그들의 소설들이 현실비판에서 어떠한 양상과 성과를 드러내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당대 소설사에 끼친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비록 양건식과 현상윤의 소설이 역사적 삶의 지평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고민을 자꾸 내재화하고 관념화하는 퇴행에의 유혹을 노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적 허약성이라기보다는 당대의 현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식민지 현실 때문이었다면 그들의 소설은 이런 점에서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소설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작품은 3·1운동 이후에 이르러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모순적인 선택 밖에 제시되지 않았던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들이 삶의 감추어진 진실을 찾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괴로워하고 좌절했을 것은 예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1910년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일련의 소설들 중에는 비록 형상화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당대의 궁핍한 삶의 현실과 이에 따른 현실비판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러한 현실비판이 주인공들의 뉘그러, 추상적인 중요심으로 일관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당대의 계몽주의 소설, 변안류의 대중소설과는 다른 경향의 소설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듯하다. 이러한 소설들의 출현은 1910년대의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모순들이 나타나게 되는 당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실비판을 담은 소설이 1910년대 중반부터 점증하는 소설사의 전개과정 안에서 일정수준의 형상화를 갖춘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들이 나타나게 된다. 즉 봉건적 유제가 미만해 있는 식민지의 어두운 일상세계, 또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개인과 사회의 왜곡된 관계 안에서 개인의 일상적 체험을 통해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는 소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현상윤의 「뽕박」(『청춘』 8호, 1917.6.)과 양건식의 「슬픈 모순」(『반도시론』 10호, 1918.2.)이 그것이다.

이들 두 작가를 특별히 조명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작품에서 지식인 주인공이 부정적인 사회현실을 통해 객관적인 자기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형상화하여 사실주의 소설로서의 성과에 접근하고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의 두 작가들의 작품들, 특히 「뽕박」과 「슬픈 모순」을 1910년대 현실비판적 경향을 띤 소설의 정점에 놓인 작품으로 간주하여 1910년대 소설사가 이러한 근대소설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 학계에서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이루어진 사

실주의 논쟁과정에서 1910년대 소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주의의 발생·발전 논쟁과정 중에서 1910년대를 한국의 비판적 사실주의의 출발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생소한 양건식의 「슬픈모순」(1918)과 걱정업슬이의 「절교의 서한」(1916)을 비판적 사실주의의 창작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작품으로 본다. 이어 1910년대에 발생한 비판적 사실주의의 문학은 1920년대 전반기에 발전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여기에서 1910년대 소설이 1920년대의 본격적인 근대소설로 나아가는 데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가정 아래에 두 시기의 소설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판적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들과 기존에 논의된 여타 소설들과의 관계정립의 문제들을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비판적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들이 1910년대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근대 소설사 안에서의 명확한 의미를 갖게 되고 1920년대의 사실주의 소설들과도 그 연관관계를 획득하게 됨을 밝히고자 한다.

Ⅱ. 1910년대 역사적 상황과

단편소설 형성의 배경

1. 자본체제 모순과 식민지 상황

1910년대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자본제적 모순을 수반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더욱이 식민지半봉건제적 조건 하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이를 한층 심화 시킨다. 가령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하는 대규모적이며 체계적인 무상 약탈과 더불어 반봉건 사회경제의 봉건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봉건적 착취는 당대 민중들의 삶의 현실을 극도로 곤핍한 상황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사회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의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당연히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제기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소박한 형태로나마 제기하여 현실비판을 형상화한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91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는 1910년대의 자본제적 모순이 점차적으로 심화되어 간 데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1차대전 후 군수경기로 자본이 비대해진 일본 자본의 국외 진출은 더욱 더 식민지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이에 따른 모순의 심화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제국주의 자본이 식민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식민지 사회에서의 본원적 축적을 강제로 추진하며 기존의 前자본제적 계급관계를 일정하게 재편한 ‘토지조사사업’이 1910년대 후반 즉 3·1운동 직전에 완료되었다는 사실¹⁸⁾은 이 시점에서의 자본제적 모순의 심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끔 한다.

18) 백옥인, 「식민지시대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 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7, p.188.

당시 백대진은 자신의 문학론을 통해 당대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바른 사회 현실과의 관련 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物質文明의 餘澤으로 生存競爭이 日로 甚하고 盛하여 生活難이 生하였으며 이 生活難 故 物質慾으로 因하여 우리 人生에 無限한 悲哀 絶無한 頹敗 故 人生에 對한 暗面이 發見하게 되엿도다 . . . 社會의 缺陷, 人生의 暗面을 根本적으로 皆無에 歸케 하여 할지니라 이것이 實로 新文學의 큰 材料오 또한 新文學者의 큰 責任이라 말하리니 . . . 今日은 決코 夢想的 藝術로 因하여 社會를 改造할 時代가 아니오 . . . 寫實主義의 文學, 故 自然主義 文學으로 理想을 作함이 加하지 아니한가¹⁹⁾

북한학계에서는 이 시기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여, 우리 나라에서 1910년 이후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이 형성화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시기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착취제도의 모순이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의 운명 위에 감출 수 없는 흔적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서 사회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식과 인간 운명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지배와 영향력에 대한 무거운 중압감과 혐오감을 더욱 더 자아내게 된다고 본다. 특히 가난하고 불우한 인텔리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연계의 복잡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개성의 지위에 대한 위험과 생활의 무의미성에 대한 감각이 더욱 커졌고 이러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1910년대의 비판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²⁰⁾.

물론 서구의 비판적 사실주의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다. 즉 근대 서구의 부르조아는 그 형성기에 전 인류의 대표자임을 자임하며 경제,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진보를 이룩하며 역사의 무대에 전면 등장한다. 그러

19) 「現代朝鮮에 自然主義 文學을 提唱함」(『신문계』 29호, 1915.12), pp.15~16.

20) 엄호석, 「우리나라의 비판적 사실주의」, 『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 발생·발전 논쟁』, 사계절문예신서 6, 북한사회과학원문학연구실 편, 사계절, 1989.

나 그러한 부르조아지의 역사발전 뒤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부르조아 사회의 잔혹성과 부패성에 대해서 소수의 인텔리겐차들은 비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예술가가 비판적 리얼리스트다. 따라서 19세기 유럽 국가들의 문학사는 이러한 비판적 리얼리즘의 발전 과정에 특별히 주의해서 연구할 경우야 비로소 상세히 해명할 수 있다²¹⁾.

그러나 1910년대 우리의 상황은 단순히 자본제적 모순의 문제뿐만 아니라, 봉건적 유제가 미만해 있는 상황 안에서 그것이 통치체제와 맞물려 있어 민족적 모순이 동시에 첨예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의 현실비판소설은 서구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과는 또 다른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 1910년대 소설의 한 흐름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현실의 관찰을 통해 비판적인 자기인식에 도달하는 一群의 소설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당대 식민지 현실의 일상생활에 대한 비판적 서술과 폭로가 나타나며 또 이를 통해 객관적 자기인식, 자기의식에 도달코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기 시작한 소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一群의 소설들이 사실주의 소설들로서의 완전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느냐 하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북한 문학사에서 이 시기에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이 있었는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1920년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前史를 도식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의도임을 감안할 때, 이 시기의 자본제적 모순에서 빚어질 수 있는 계급갈등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몇몇 작품들(가령 양건식의 「슬픈 모순」 등)에 대해 과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듯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현실비판적 경향을 드러내는 작품들은 당시에 낙관적인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계몽소설, 또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절망적인 도피를 하고 있는 유학생계층의 소설들과 분명히 변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지식인의 현실비판의 세계를 다루는 작품뿐만 아니라, 식민지

21) 伊東勉, 이현석역,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세계, 1987, pp.146~147.

시대 하층민의 궁핍한 삶의 현실을 다루는 경향적 소설도 나타나는 바 이 시기의 소설들이 한국 근대 사실주의 소설로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며, 그것이 20년대의 본격적인 사실주의 소설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수 있다.

2. 신지식층의 형성

1910년대 중반 이후 대한 제국의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일본 등지로 유학을 떠나 신지식, 신사상을 흡수하는 데 열중하였고, 1910년대 중반 이후 이들이 차례로 귀국하면서 국내에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신지식층의 사상은 당시 유학생 학우회 기관지였던 『학지광』과 최남선의 신문관에서 발행한 『청춘』을 중심으로 개진된다. 특히 『학지광』을 보면 당시 지식인에게 실력양성론의 사고가 널리 깔려있는 경향을 보인다.

구한말 이후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대다수 유학한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유학이 시작된 1880년대 이후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유학사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²²⁾. 제1기, 제2기와는 달리 제3기는 1910년대로 이때의 유학생층의 현실대응방식은 크게 두 부류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자기비판의식’을 갖고 바라보려 한 비판적 신지식층이고, 하나는 ‘허

22) 제 1기는 1904년 이전으로 망명정치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던 시기로 유학생들은 학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일본어나 익히고 귀국하여 仕宦의 길에 나갈 것을 꿈꾸던 시기였다. 제2기는 1904-1910년의 시기로 한국내에서의 일본세력의 압도와 함께 일본유학 바람이 일어, 다수의 청년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일본 유학의 길에 올랐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 귀국하는 경우가 많았던 시기였다. (필자미상), 「일본유학생사」, 학지광 6호, pp.11~13.

위의식'을 갖고 일본의 문명개화노선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었던 친일적 신지식층이 그것이다.

일본의 국권강탈 이후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자 우선 개인적인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른바 '실력주의' 분위기가 팽팽하게 되었다. 이들 실력주의를 주창한 부류가 바로 비판적 신지식층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장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 이후 한국민족이 처한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 지식인의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 자신들이 그러한 과제를 담당할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듭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거듭하여 말합니다. 조선사회가 잘 되고 못되는 것은 전혀 여러분이 '조선의 운명은 내게 있다'를 자각하고 자각치 못함에 달렸다고요²³⁾.

따라서 이들은 일부 유학생들이 새로운 문명생활에 도취하여 금전을 낭비하고 서구적 생활을 흉내내는 데 몰두한다든가, 주색에 빠져 방탕생활을 하는 경우를 통렬히 비판하였다²⁴⁾. 그들은 우선 면학을 통하여 각자의 실력을 기르는데 열중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실력주의'를 제창하였다. 즉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도도히 흘러가는 암흑의 사회를 구제하고 신문명을 개발해야 이를 유지하며 이를 전진케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다하고 이상을 실현하려면 충분한 용의와 다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각자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²⁵⁾. 그들이 '실력주의'를 제창한 데에는 사회진화론적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다. 즉 그들은 인류사회를 약육강식과 우생열패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보고, 이 경쟁

23) 소성, 朝鮮靑年과 覺醒의 제1보, 『학지광』 15호, p.14.

24) 현상윤, 「말을 반도청년에게 붓침」, 『학지광』 4호, 1915. p.19.

25) 김이준, 「반도청년의 각오」, 『학지광』 4호, 1915, pp.22~24.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첫째가 學識智慮요, 둘째가 힘이라고 보았던 것이다²⁶⁾.

이들은 구한말의 자강운동자들의 실력양성론을 계승한 측면이 강하다²⁷⁾. 그러나 이들의 실력양성운동은 구한말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1910년대의 비판적 신지식층의 실력양성론은 '독립'을 요원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은 문명 개화, 실력양성, 민족성의 개량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며, 독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주적 실력양성론'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1910년대 일본유학생과 국내의 신지식층의 상당수, 그리고 국외에서 안창호의 홍사단 등이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이 유학생층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신지식층의 내용이라면 당시 국내의 신지식층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었을까. 비록 국내에서는 신지식층이 형성되는 길은 거의 차단되어 있었지만,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활동하면서부터 국내에서도 신지식층은 서서히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1910년대 무단정치 하에서 그들의 활동폭은 극히 좁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유학생층에 비해 국내의 비판적 신지식층은 그 층이 두텁지는 못하였으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거의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나 혹은 불교·기독교·천도교와 같은 종교기관에 근거를 두고 활동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뿐만아니라 출판의 자유 또한 금지되어 있던 터라 발표매체도 친일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외에는 이들 종교단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밖에 출간될 수 없던 형편이었다. 이들 종교계 기관지에는 1910년대의 종교계가 새로운 역사적 상황하에서 진로를 마련하기에 부심하는 여러 방략들이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또한 이들 매체를 통해 상당수 발표된다. 1910년대에 이들 종교적 단체들의 기관지가 새삼 그 가치를 지니는 데에는

26) 이웅남, 「吾人の 特有한 力の 價値를 發揮하여라」, 현상운, 「강력주의와 朝鮮青年」, 정충원, 「아아 兄弟여」, 『학지광』 6호, 1915.

27) 박찬승, 「일제하 '실력양성운동론'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0.

이러한 이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때에 민족운동사의 의미를 기대할 수 있는 종교로서 특히 본 논문과 관계하여 불교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불교계는 일본불교와의 합병을 협약으로 체결할 정도로 민족종교의 위치에서 탈락해 있었고 식민불교로까지 전락하였다. 그러나 1910년이 지나면서 뜻있는 승려에 의해서 반성이 일어나고 있었다. 1913년에 발표한 한용운의 '불교유신론'과 1915년의 중앙학림의 설립, 1918년의 「唯心」지의 간행이 그것이다. 그 밖에 불교계의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居士佛教運動'이다.

거사불교운동은 '양건식' 장에서 자세히 거론하겠지만, 한마디로 문화적 계몽운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거사불교운동의 중심인물로는 이능화, 양건식, 박한영, 권상로, 최동식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불교계에서 근대적 학습능력을 지닌 신지식층에 속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儒學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지식인들로서, 봉건주의의 수직적 실천원리인 유교를 비판하면서 유교에 의해 소외되었던 불교를 상대적으로 주목하였다. 이들은 불교를 새롭게 해석하여 당시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려 하였는데, 이 운동의 가장 가치있는 부분은 이능화, 양건식 등을 통하여 드러난 바, 불교를 재해석하여 '식민지 조선을 탈피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불교'를 제시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불교진흥회월보」 「조선불교계」 「조선불교총보」는 거사불교운동을 벌인 불교진흥회의 기관지였고 거사불교운동의 구심점에 놓인다. 이 세 잡지는 모두 거사불교운동의 중심인물인 이능화가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되어 발간하였으며, 여기에는 1910년대 거사불교운동의 구심점을 이루는 중요인사들이 대거 필진으로 활약한다.

1910년대 비판적 리얼리즘 경향소설의 대표적인 작가인 양건식은 불교진흥회의 전임서기로 근무하면서 불교진흥회의 기관지인 「불교진흥회월보」의 기

자로 활동하였고, 이 잡지가 폐간된 후 곧 창간된 『조선불교계』 『조선불교총보』의 기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이 잡지 등을 통해 불교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객관화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불교의 철학적·종교적 이론규명 작업을 가장 의욕적으로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불교를 재해석함으로써 불교가 식민지 조선을 탈피할 수 있는 적당한 종교임을 설파하였다.

국내외에서 행해진 비판적 신지식층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현실을 보는 비판적 안목을 확산시켰으며, 요원하나마 식민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허위의식’에서 벗어나 ‘자기비판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려 하였으며, 당대 사회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10년대 작가들도 새로운 문학을 요청받고 있었고, 그러한 요청 속에서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이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3. 비판적 사실주의의 개념규정

비판적 사실주의란 엥겔스의 사실주의관을 계승하여 고리끼가 만든 용어인데, 특히 19세기 봉건제도와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면을 사실적으로 묘사·비판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 부정적 측면에 눈뜨게 함으로써 현실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이다²⁸⁾.

村上嘉隆은 비판적 사실주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항목화하였다.

- ① 비판적 사실주의는 부르조아 사회의 결점을 비판하는 사실주의다.

28) 장사선, 『한국리얼리즘문학론』, 새문사, 1988.

- ② 그것은 지적으로 뛰어난 개인의 비판에 의해 진행된다.
- ③ 그 개인은 부르조아 사회로부터 필요없는 자로 취급되기 마련이다.
- ④ 그러나 비판적 사실주의에 의한 비판은 개인적인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며, 현재 사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지향하지는 못했다.
- ⑤ 비판적 사실주의는 사회적 투쟁에 참여하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라서 예리하게 비판하면서도 자신이라는 개인이 도대체 어떤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에 답하지 못하며, 생활에 목적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었다.
- ⑥ 그 결과 비판적 사실주의는 악을 부정할 뿐, 무엇을 바랄 만한 것으로 긍정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출구를 제시할 수 없었다.
29).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이루어진 북한 학계에서의 사실주의 발생·발전 논쟁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1910년대의 비판적 사실주의의 한 성과로 양건식의 「슬픈모순」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북한 학계에서의 논의가 소개되면서 이에 촉발되어 국내에서도 양건식 문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먼저 양건식의 생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고찰이 있었으며³⁰⁾, 이어 그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문학사적 평가는 1910년대 소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양건식 문학, 특히 「슬픈 모순」에 대한 평가는 논자들이 1910년대 소설을 어떠한 시각으로 파악하는가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어떤 작품에 대한 평가의 정도가 논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슬픈 모순」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좀더 예리하게 부각되고 있다.

1910년대를 비판적 사실주의의 발전 혹은 발생기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문학사는 대표적인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로 「슬픈 모순」을 평가하고 있다. 단

29) 村上嘉隆, 유엄하 역, 『계급사회와 예술』, 공동체, 1987, pp.58~59.

30) 고재석, 「백화 양건식 문학연구」 1, 『한국문학연구12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9.

한 작품으로 1910년대의 비판적 사실주의의 흐름을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후에 걱정없을이의 「절교의 서한」, 현상운의 「한의 일생」 등이 첨가되었으며, 리동수에 이르러서는 더 많은 작품들이 열거되었다³¹⁾. 「슬픈 모순」에 대하여는 일제 식민지 통치시기의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폭로·비판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합리한 현실의 사회계급적 근원을 철저하게 밝히지 못한 것을 그 한계로 들고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 1910년대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여 우리 나라에서 1910년대 후반 비판적 사실주의의 창작방법을 구현한 작품들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一般의 소설들에서 당대 식민지 현실의 일상생활에 대한 비판적 서술과 폭로가 나타나며 또 이를 통해 객관적 자기인식, 자기의식에 도달코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기 시작한 소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설들이 사실주의 소설로서의 완전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느냐 하는 점에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북한 문학사에서 이 시기에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이 있었는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1920년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前史를 도식적으로 설정키 위한 의도임을 감안할 때, 이 시기의 자본제적 모순에서 빚어질 수 있는 계급갈등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몇몇 작품들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31) 과학원 언어 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조선문학통사」 하 (과학원 출판사:1959/인동, 1989), 박종원, 류만, 최탁호, 「조선문학사」 (19세기말~1925)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 정홍교, 박종원, 「조선문학개관」 1(사회과학원출판사, 1986/인동, 1988), 리동수 지음, 김재남 해제, 「북한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연구」 (살림터, 1992) 이들 문학사 중에서 「--통사」에서는 「슬픈 모순」 한 작품만을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으로 들고 있으며, 「--문학사」에서는 걱정없을이의 「절교의 서한」이, 「--개관」에서는 현상운의 「한의 일생」까지가 추가되어 있다. 리동수에 이르러서는 앞의 작품 외에 주낙양의 「마을집」, 현상운의 「재봉춘」,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 류종석의 「냉면 한 그릇」, 배재황의 「뽕뿌라 그늘」, 백락천인의 「과모의 루」, 춘원의 「무정」, 「개척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듯하다. 이러한 북한 문학사의 시각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김복순의 논문으로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냉철한 비판인식, 노동자 학대 사건에 대한 분노가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세부묘사의 풍부성과 진실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주인공인 '나'의 방황과 함께 실천의 모습까지가 그려져 있다고 하여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소설에서 양건식의 소설을 최고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³²⁾. 양문규 역시 비슷한 평가로 주인공이 실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나'의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당대의 구체적 사회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형상화되고 있으며 당대 하층민의 전형이 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³³⁾.

이에 비해 한점돌은 「슬픈 모순」이 일부 연구가들에 의해서 1910년대의 가장 진보적이고 중요한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부분적, 파편적 디테일을 작품의 핵심으로 간주하여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힘들어 보인다고 한다. 1910년대의 비판적 사실주의를 선구적이고 과도기적인 형태의 것으로 의미를 제한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경향을 이루어 1910년대의 문학사적 의미망을 형성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와는 다른 각도인 비극소설이란 개념으로 양건식의 문학을 분석하고 있다. 1910년대 후반을 거쳐 1920년대 초기로 가면서 비극소설이 다른 소설유형을 압도하고 뚜렷한 소설사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건식의 소설을 이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³⁴⁾. 김현실은 1910년대 소설을 양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슬픈 모순」을 그 시기 단편소설인 「고학생」 「냉면」 「마을집」 「부르지 집」 「방황」 「뽕박」 등과 함께 묶어 1920년대의 「창조」의 단편들과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암야」 「제야」 등과의 연속선상에서 분석하고 있다.

32) 김복순, 앞의 논문.

33) 양문규, 앞의 논문.

34) 한점돌, 『한국근대소설의 정신사적 이해』, 국학자료원, 1993.

1910년대 문학에 비판적 사실주의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한다는 것은 1910년대 소설을 다 검토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렵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기대어 살펴보면 양전식과 현상윤의 소설이 1910년대 단편소설 중 주목할 만한 사실주의 계열의 소설인 것이다. 여기서 사실주의라함은 당대의 현실을 꺾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상식적인 의미인 것이다. 굳이 ‘비판적’이라는 제한을 붙이자면 과도한 의미부여라 할 수 있는데, 작품을 개념에 끼워 맞추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슬픈 모순」을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한점돌의 비판은 이유가 있다. 「슬픈 모순」의 서두에 나오는 주인공이 애독하는 책이 도스토예프스키의 「학대받은 사람들」이라거나 ‘로동복을 입은 로국 문호 막심 고리끼’의 초상화를 보고 별안간 정신이 아뜩하여 주저앉는 세부적인 서술에 대하여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사실주의라는 개념과 분류는 작품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소품이기는 하지만 현실비판의 경향을 드러내는 일련의 단편들은 낙관적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무정」등의 계몽주의 소설, 그리고 현실비판적 요소가 나타나지만 결국 현실로부터 유리돼 절망적 도피를 하는 「개척자」등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식민지 시대 하층민의 궁핍한 삶의 현실을 다루는 경향적 소설도 나타나 예의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

Ⅲ.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

1. 현상윤의 소설

(1) 생애와 사상적 업적

현상윤은 字는 執中이고, 初號는 小星, 1933년 전후하여 幾堂이란 호를 썼다. 그의 아버지는 成均館 典籍 玄錫泰로 가정은 대대로 儒學을 하여 내려온 관서 일류의 명문가였다고 한다. 그는 그러한 가풍을 계승하여 家塾에서 한문을 학습하였고 12세부터는 玄鎭菴에게서 경서를 배웠다. 鎭菴은 현상윤이 평생 숭배하던 관서지방의 유명한 유학자로서 1895년 을미사변 후 충북 제천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킨 義士 유인석의 수제자인 동시에 동지였다. 그러므로 현상윤은 경학에만 통달한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의 고취도 직접 간접으로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³⁵⁾.

그의 나이 16세인 1909년에 정주 梟湖育英學校를 수료하고, 도산이 창립한 대성중학교에 입학한 후³⁶⁾, 105인 사건으로 대성중학이 강제 폐쇄되자 1912년 보성중학으로 전학하였다. 1913년 이를 졸업한 후 선진학문을 더 배우기 위해 1914년 일본 와세다대학에 입학한다. 동경 유학생 시절 유학생회지 『학지광』의 주간으로 있으면서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1918년 3월 史學科及社會學科를 우수하게 졸업한다. 졸업 후 귀국하여 모교인 보성학교의 초청을 사양하고 김성수의 요청을 받아들여 1918년 경성중앙학교 학감으로 취임한다. 중앙학교 교사 시절 교장 송진우와 사택에서 함께 기

35) 김기현, 「新文學 初期의 小說考」, 고대어문논집 12, 고대어문학회, 1970.

36) 서당을 그만두고 학교에 들어 가게 된 것은 “선배 안창호 외 諸씨가 각처에 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신교육의 필요를 느꼈으며, 당시 대한매일신보를 애독한 결과”라 한다. (현상윤, 학생시대회고, 신동아, 1935.4.) 그리고 현상윤은 신교육의 첫 출발을 도산이 설립한 대성중학교로부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사상 형성에 있어서도 도산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거할 정도로 의기가 투합하였으며, 김성수·송진우·현상윤 3인은 늘 사택에 모여서 시국에 대한 의논과 토론으로 志氣가 상통하였다. 바로 이곳에서 3·1운동이 모의된다. 현상윤은 이 모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제2차, 제3차 독립운동을 위하여 젊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33인에 끼지 않고 48인에 남아 있었다³⁷⁾. 그는 이 때문에 2년간이나 복역하였던 것이다. 1921년에 출옥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기개를 굽히지 않았다. 다시 중앙학교에 복직하고 1992년 교장에 취임한 후 1946년 고려대학교 초대총장을 거쳐 6·25 때 납북되기까지 그는 평생 교육에 전력을 다하며 교육구국운동을 벌인다. 뿐만 아니라 그가 1910년대에 견지했던 바의 사상내용도 거의 변함이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견지해 나간다³⁸⁾.

한편 현상윤에 대한 업적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의 儒學史 敍述이다. 그가 쓴 『朝鮮儒學史』는 고려대학교에서 『朝鮮思想史』의 일부로 강의한 것을 1949년에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다³⁹⁾. 『조선유학사』는 우리 나라의 유학을 역사적으로 체계세운 최초의 것으로, 이 연구로 현상윤은 고려대학교에서 문학박사 제 1호가 된다.

현상윤은 초기의 출발인 儒學的 바탕에서 구한말의 계몽사상을 이어받고, 1910년대에는 우리 전통사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서양사상에 경도되면서 실력양성론을 주창하다가 다시 1920년대 이후의 ‘교육구국운동’의 단계로,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유학사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단계를 발전적으로 전개시켜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상윤의 의식의 변모,

37) 홍일식, 『고려대학의 사람들 4, 현상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6.

38) 그가 견지했던 사상적 내용이란 요원하나마 ‘독립’을 전제로 한 ‘자주적 실력양성론’이다. 그는 유학생 시절에는 ‘실력양성론’의 대표적 인물로 활동하게 되는데, 『학지광』을 통해 「구하는 바 청년이 누구냐」 「말을 반도 청년에게 붓침」 등등 상당수의 글을 게재한다.

39) 현상윤, 『朝鮮儒學史』, 현암사, 1982.

사상의 변모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필연성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상윤은 늘 시대와 함께 사고하며 실천하며 살았던 지식인이었던 것이다.

(2) 현상윤의 문학관

문학을 통한 구국달성의 염원이란 실로 어려운 일에 속한다. 더구나 현상윤은 문학전공이 아닌 사학사회학 전공이며, 많은 작품과 평론을 남기면서 괄목할 만한 근대성과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였음에도 ‘문학지향성’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가 3·1운동 후 교사직에 복직하면서 작가 활동을 중지하고 아예 문학을 버리게 된 바로 이부분에서 우리는 현상윤이 소박하게나마 ‘근대적 문학개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적 문학개념이란 문·사·철을 아우르는 ‘문장’이란 개념으로부터의 탈피, 정치적 또는 현실적 효용으로부터의 문학의 분리를 말한다.

만약 그가 근대적인 문학개념을 갖지 않았다면 이광수처럼 계몽가의 역할과 작가의 역할을 동시에 병행해 나갔을 것이다⁴⁰⁾. 이광수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문학개념을 인식한⁴¹⁾ 이 후에도 계몽가로서의 역할과 작가로서의 역할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구국운동으로서의 교육운동이 너무 크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구국운동과 문학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그가 1921년 말 올해의 문단평과 새해 문단에 대한 요구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3자의 지위’에서라는 조건으로 수락했다는 글⁴²⁾에서 문학

40) 최시한, 앞의 글, p.106. 이 글에서 그는 현상윤이 근대적 문학개념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1) 이광수, 「文學이란 何오」, 매일신보, 1916.11.10.

42) 현상윤, ‘문단에 대한 요구’—“생활에 접촉하고 수양에 노력하라”, 동아일보, 1922.1.1.

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알아보자.

‘문예는 생활의 산물이고 반영’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내용을 충실케 하려면 생활이란 기초가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의 문예를 막론하고 그 시대 그 민족의 특유한 색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희랍에는 희랍의 문예가, 독일에는 독일의 문예가, 영국에는 영국의 문예가, 그 중에도 엘리자베드 시대에는 엘리자베드 문학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조선의 현금 문학은 어떠한가. 작가들은 우리의 참 생활을 觀察 寫出하지 못하고 그 언사나 인물의 氏名을 조선의 그것으로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작가들은 현금 조선사람들의 참 고통이 어디 있고 참 슬픔이 어디 있으며 참 희망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으며, 그들의 작품 가운데 나오는 인물의 성격이 현재 조선인 대다수의 또는 대표적 인물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문학은 “적어도 인생의 결함을 적발하고 그것을 보충하는 완성의 사명을 가졌다”는데, 그러한 사명을 이룩하려면 “심각한 관찰, 주도정예한 관찰, 고원한 이상미, 위대한 감정, 발달한 양심, 원만한 인격이 필요”하다. 이것은 작가들의 성의와 노력과 수양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데 조선문단, 조선 작가들에는 아직 이러한 내용이 부족하다. 따라서 조선문단이 크게 발전하려면 “첫째 조선 사람의 현재생활에 접촉함이고, 둘째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찰과 묘사로서 조선사람의 肺腑를 찌르고 筋骨을 투시하는 實相實情을 간파하며 그려야 하고 구조와 제작은 血을搾하고 心을 傾하는 凝意集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현상윤은 ‘문학은 생활의 산물이고 반영’이라는 소박하나마 반영론의 입장에서 조선의 문학, 조선사람의 문학을 강조하여 민족문학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측면이 발견된다. “우리의 참 생활에 하등 교섭이 없는 문학” 그것은 참 문학도 아니며, 조선의 문학일 수도 없으므로 조선사람의 참 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할 것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한 작가가 그린 소설 속의 인물은

그 시대 대다수의 또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형상화 되어야 한다고 하여 인물의 전형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문학에 ‘인생의 결함을 보충하고 완성하는 사명’이 있다는 자각하에 그리고 문학이 가지는 효용성을 인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즉 현재 조선의 실상을 제대로 정확하게 그려내야 한다는 사실주의적 인식 아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문학만이 바로 조선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주의적 인식은 1910년대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 형성과 궤를 같이 하여 산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문학 지향성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는 많은 작품활동과 문학론을 통해 1910년대에 새로운 문학운동을 일으킨 “문단의 혁명가”⁴³⁾였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최남선과 이광수가 독주하던 시대에 제3의 새로운 문인⁴⁴⁾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序跋批評 형식의 「薄命」 후기에는 단편적으로나마 문학의 사실성과 허구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⁴⁵⁾.

이 한편은 年前에 이 소설 가운데 말한 지방에 살던 친구 두 사람이 나와 함께 평양에 와서 공부하다가 가통하게도 두 사람 다 長逝의 사람이 된 사실을 습들어 뼈로 하고, 약간 고기를 붙인 것인데 이 사실을 짐작하시는 형님들은 이拙著를 보아, 옛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禁치 못하노라.

라고 하여 이 소설이 실제의 사건을 바탕으로 형상화한 것이며, 소설은 진짜 현실같은 허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평북 정주를 배경으로 실제의 사건을 형상화시킨 것은 새로운 공간의식의 발로이자, 근대소설

43) 白一生, ‘문단의 혁명아야’, 『학지광』 14호, 1914. 11.

4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45) 序跋批評은 비평이라는 문학장르가 전문화되기 이전의 비평형태로써, 특히 1900년대와 1910년대에 비평의 몫을 톡톡히 행한 비평형태이다.

에 있어서 일상성 획득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소설의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아닌 寫實的인 생활의 배경이며 일상적인 삶의 터전을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현실인식 및 사회인식을 소설 속에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상의 「薄命」 후기를 통해 볼 때 현상윤은 단편적이거나 1910년대에 이미 소설 작품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학론에 있어서도 문학에서의 사실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현상윤의 소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상윤의 소설은 「恨의 一生」(『청춘』 2호, 1914), 「薄命」(『청춘』 3호, 1914), 「再逢春」(『청춘』 4호, 1915), 「清流壁」(『學之光』 10호, 1916), 「曠野」(『청춘』 7호, 1917), 「逼迫」(『청춘』 8호, 1917)의 총 6편이다.

이들 소설의 특징은, 모두 당시의 현실적 혼란과 궁핍, 비극적 전락의 삶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운 현실인식에 입각한 경험적 사실성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재래적 가치에 의한 양식적 특성과, 새로운 현실인식에 의한 양식적 변모가 다양하게 교차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광야」와 「재봉춘」은 현실적 혼란과 비극적 세계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봉건적 관념이나 '우연'에 의해 약화되어 버리고마는, 재래 가치의 양식화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고난과 방탕과 헤어짐의 원인인 세계의 파괴성이 이야기의 줄거리로 등장하지 못한 채, 만남만이 부각되며 (재봉춘), 고난과, 절망과, 가족적 파탄이, 우연한 구출 및 우연한 상봉에 의해 해결됨으로써 (광야) 이들의 현실인식은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만다.

특히 여기에서 사용된 기계적인 소급서술과 과거 내력서술에 치우친 회고

형 서술은 그러한 작가의식을 더욱 잘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둡고 괴로운 과거를 회고형 서술로써 비객관화된 시점을 통하여 열거한 채, 그것이 다시 현재의 사건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객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함으로써 독자는 결국 현재의 ‘만남’이라는 사건보다, 과거의 ‘헤어짐’ ‘절망’ ‘괴로움’에 내재한 원인으로서의 세계를 분석적으로 받아들일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우연의 만남은 그 껍진성을 잃고 만다.

「광야」에서는 유기적인 소급서술과 극적 장면 제시로써, ‘만남’을 좀 더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역시 고난의 과거 서술에 개입된 작가 동정적 시점, ‘우연’의 상투적 장치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현실세계에 대한 사실적 긴장감이 약화되고 있다. 「재봉춘」에서 또한 소설 속의 인물들 대부분이 이른바 동경유학을 한 인텔리로 설정되었다손 치더라도 구조적으로 그들은 시대적 현안을 예리하게 제기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 일생」과 「뽕박」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문제의식이 소설의 구조와 다소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한의 일생」은 개성에 사는 영락한 양반 김시종의 아들 김춘원이 어려서 그의 부모들이 정하여 준 약혼녀 이영애를 금전으로 유혹하여 빼앗으려는 그의 주인 윤상호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난 후 자기도 자살해 버리는 비극적 이야기다. 김춘원이 그의 상전 윤상호와 약혼녀 이영애를 살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치정관계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금력이란 새로운 사회악과 배신이란 윤리적 타락에 대한 응징으로 폭력이 행사된다는 문제점의 제기다.

김춘원은 패륜아 윤상호를 처단하기에 앞서 이런 녀두리를 한다.

“나로 말하면 종 아니냐. 너 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너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너 입는 옷을 입지 못하고 너 배우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나 아니냐. 하고 십기야 난들 너만 못하겠나냐—마음에야 네 종 노릇 하고 십겠나냐? 불공평한 세상이 나로 하여곰

우선 김춘원의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 몰락이 낳은 신분적 몰락에 있지 않다. 그는 양반 자제의 신분에서 윤참봉 집 하인으로 전락하는데, 김춘원이 분노하게 된 원인은 경제력의 유무가 곧 신분의 척도로 평가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온갖 비인간적인 악행을 당해도 참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김춘원의 살인 및 자살은 시대에 대한 저항이자 자신에 대한 거부의 몸짓이며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돈 없고 힘없는 자'의 절규이다.

“에익---그래 너나 내나 죽지 않고 산대야 무슨 시원한 세상을 보겠니 . . . 돈만 있고 세력만 있는 이 세상에 . . . 너와 내가 언약이니 무엇이니 하여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이 처음부터 잘못이다. 아아 세상이 우리로 하여곰 滋味있게 살아감을 許諾치 않는다.--- 돈 없고 힘없는 우리로⁴⁷⁾.

돈 없고 힘없는 자의 억울함이 굴종과 묵종으로 달래이던 기존 윤리의 순응에서가 아니라 자아각성 및 평등의식의 발로로, 폭력으로 그것에 항거하는 자세, 이것은 분명 새로운 사회의식과 더불어 절실한 시대의 문제를 함축한다. 현실적 인물에 의해 제기된 시대적 문제는 피압박자들의 유일한 최후 수단인 폭력을 대동한다는 것이다 살인과 자살은 사회질서의 철저한 파기와 부정을 의미하며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위한 미래지향적 전초적 행위로 풀이된다고 볼 때 김춘원은 행동을 통하여 가장 현실적 성격을 구조적으로 획득한다. 그의 약혼녀 이영애 또한 새로운 시대의 인물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성격의 비전형성에서 말미암는다. 갖은 고난과 유혹을 뿌리치고 절개를 지켜 행복에 이르는 상투적 설정의 파기 및 거부는 새로운 시대의 위력인 금력 앞에서 망설이는

46) 「한의 일생」, 「청춘」 2호, p.137.

47) 「한의 일생」, 위의 글, p.138.

연약한 인간심리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성격의 현실감각을 제기한다.

「逼迫」은 현실과의 팽팽한 대결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이 느끼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묘파한 소설이다.

주인공 ‘나’는 비교적 안온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하는 편이며 일본 유학까지 다녀 온 지식인이다. 성격적으로 볼 때는 동정의 눈물도 있고 희생의 관념도 가진 재주있는 학생이다. “부모는 평강히 계시고 형제는 단란히 즐기며 안해는 해죽이 웃고 썩지안은 생선이 몇가지 상에 오르고 더럽지 안은 채소가 가끔 그릇에 담길” 정도로 일상적 삶의 여유를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도 그는 “나제는 먹는 밥이 달지 아니하고 밤에는 잠이 편치 못하며 얼굴은 파래고 살은 깎기며 피는 왕성치 못하고 힘줄은 신축이 자유롭지 못하고 반가운 친구를 만나도 우습이 껴치 아니하고 남에게 稱譽를 바다도 깃뼘이 나오지 아니한다.”⁴⁸⁾

주인공 ‘나’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주위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설이 진행됨에 따라 밝혀진다. ‘나’의 병은 어떤 사명감과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 사이의 갈등에서 유발되고 있다. 그는 「슬픈 모순」의 주인공 ‘나’와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견딜 수 없이 괴롭다. ‘나’에게 있어 그가 가진 좋은 환경은 내면적으로 병의 증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제의 침략으로 황폐해진 현실 속에서 주인공 ‘나’의 개인적 안일은 ‘하기에 게르고 배호기에 게른 놈’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글도 보고 과학·농사상 지식도 약간 있고 동정의 눈물도 있으며 특성의 관념과 자선의 귀한 줄도 안다. 그리고 반지 빠른 才燥도 있고 다소의 稱譽도 있다. 그러나 주인공 ‘나’는 四方으로 들어오는 뽕박이 刻一刻 급하여 간다.

48) 「逼迫」, 『청춘』 8호, 1917. pp.86~90.

‘나’의 지식인으로서의 내성적 태도는 개인적 안일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고통 속에서 내재된 삶의 이미지를 탐색하려는 노력을 수반한다.

저녁밥을 먹고 너머 無聊하여서 농부들의 집회한 곳을 차자가 다. 긴 담배대문 尊位님도 안жат고 우숨소리 잘하는 외돌이 아바지도 안жат고 코長短 잘하는 슈길이 형도 안жат고 누구누구 여러사람이 안жат는데 모도다 나를 보고는 이살이 한쪽으로 찌여지면서 비죽비죽 웃는 모양이라. —중 략—

“임자 공부도 잘 했다니 일안하고 돈 모으는 법이 무엇임마?” 하고 말을 낸즉 녀혜 안жат던 코長短 잘하는 슈길이 뉘은 기쭈트 외돌이 아비를 비웃는 양으로 “여보소 그런소리 그만두게 . . . 저 사람 덕에 우리가 다 살터인데 . . . 아 우리야 野蠻 아니기에 그럼마 흥- ” 하고 말을 끼우니 잠жат고 안자 듯던 존위님은 담배대문 긴 활개를 한깃 펼치면서

“애 ××야 너 내가 참말이다. 그만치 공부를 하얏으면 判任官이 나는 하기가 아조 쉽겠고나 거 제일이더라 저 건넌골 백선달 아들도 벌서 토지조사국 技手라든가 했다구 저 어른도 깃버하더니 접대 잠간 단길러 왓다는 것을 보니 과연 그럴듯 하더라 -- 신눌한 금줄을 두루고 길죽한 검을 느렸는데 참말 조터라-- 너도 그걸 해 보아라”하고 勸勉的 慫慂한 말을 준다⁴⁹⁾.

위 글을 살펴 보면 ‘나’는 이러한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자신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이해시킬 방도가 전혀 없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하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의식있는 식민지 지식인의 공통된 고뇌일 수 있다. 그를 괴롭혔던 진짜 이유는 기실 일제의 주구 노릇을 할 수 없었던 데 있다. 지식인이기에 권리니 의무니 윤리를 외치고 다녔지만 실상 자기 자신은 허위임이 분명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묵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진실한 생활인의 모습이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49) 『청춘』 8호, 위의 글, p.89.

----원終日 허리를 구부리고 묵은 땀을 흘리면서 일하다가 이 때에 黃昏을 띄고 各各 집으로 들어가면 문에서 반가이 나오는 어린아해들과 뜰에서 慰勞하는 父母와 함께 맛있고 조흔 저녁을 짓고 잇든 안해와 함께 들어가 모혀서 우스며 즐기고 마시며 먹는 것을 .

—중 략—

애 이놈어 우리는 우리니마에 흐르는 땀을 먹는다소니 조금이나마 미안이나 고통이 있슬소나 . . . 어리고 철업는 놈아 무엇이 엿재---권리니 의무니 윤리니 도덕이니 평등이니 자유이니 무엇이 엿재 나는 다 모른다.---

일본유학까지 한 그로서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시대와 철저히 맞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현실과 철저히 맞서는 지식인의 모습을 그린 소설은 그리 흔하지 않다. 이 작품이 지닌 의의는 바로 이러한 점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이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작품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당대 민중의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는 농부들과 지식인인 ‘나’ 사이에 전혀 동류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민중에 대해 ‘나’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복합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이 작품의 단계에서는 지식인과 민중과의 연대가 가능치 않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요소이다.

「清流壁」은 황해도 재령에서 양가의 딸로 자랐으나 한 가장의 아내로부터 남의 첩으로, 그리고 결국엔 작부로 전락하여 23세의 젊은 나이로 자살하게 되는 김영은의 기구한 일생을 묘사한 소설이다. 창기들의 고통에 찬 생활을 겪은 동정심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과, 비극적 결말을 낳은 근본원인을 남성의 사회적 횡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비판적 의미를 지니며⁵⁰⁾, 금전의 구속

50) 이동하, 위의 논문, p.67.

을 받아 고통을 맛보는 일생을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한 일면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영은의 비극은 16세때 안악읍에 사는李과부의 아들 이성도와 혼인하면서 부터 시작된다. 이성도는 교육상태가 좋지 못한 방탕아로서 모친이 죽자 어느 기생과 작첩한 후 결혼한 지 1년만에 영은을 쫓아낸다. 쫓겨난 영은이 본가에 와 있던 차 그 곳 재령군 主事로 와 있던 황석보의 첩이 된다. 황석보는 평양으로 전보되자 본처의 시기를 겁내 降仙館이라는 기생조합에 300원 받고 영은을 팔아 넘긴다.

한편 이성도는 6년간의 방탕으로 있던 재산을 모두 날리고 무일푼이 되자 새사람이 되고자 첩을 내쫓고 영은을 찾아 나선다. 가까스로 영은의 거처를 수소문했으나 이제 옛날의 아내를 구할 돈이 없다. 영은도 남편을 만난 처음에는 남편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나 남편이 백방으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자 어서 빨리 여기서 놓여 났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영은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보인 태도의 묘사는 소박하나마 1910년대에서 보자 드물게 인간심리의 미묘한 변화를 잘 포착하여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처음 성도를 볼때는 니가 부득부득 갈니고 치가 화들화들 떨어져 다만 “흥 당신 나 좀 보아 . . . 나는 색주가야 . . . 흥흥” 하는 멧마디 밧게는 아모 말도 하지 못하고, 두번째 성도가 차자와 슬 때에는 그동안 지나든 눈물 역사와 분하고 절통한 니약이를 일일이 말하면서 “세상사람이 저촉금 제멋에 살아 . . . 나는 이노릇이 조아 . . . 지금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 . . 왜 와서 이래 흥흥”하고 얼마큼 성도의 그동안 비인정 부도덕한 일을 꾸짖고 비웃었다⁵¹⁾.

하지만 남편의 굳은 결심을 알게 되자 영은은 남편이 부쳐온 돈 100을 주

51) 「청류벽」, 「학지광」 10호, p.55.

인에게 주면서 애원해 보게 된다. 하지만 강선관 주인은 300원을 내야 한다며 거절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영은이 한밤중에 도망을 시도하나 순사에게 들켜 붙잡히고 가지고 있던 돈 100원마저 빼앗기게 된다. 영은은 “돈밖에 모르는 세상”을 저주하면서 청류벽에서 자살한다.

열여섯부터 실사회의 길을 떠난 영은이는 가는 곳마다 불행이요 맛나는 것마다 고통이라. 그러므로 우습이 있다 춤이 있다하는 세상도 이 영은의 눈에 는 모도다 꿈갓치 보이고,樂觀이라 幸福이라 하는 인생도 이 영은의 생각에는 모도다 꿈갓치 생각되얏더라. 그러나 언제 한번내게도 조흔 운이 도라오렷다하고 마음을 굿게먹고 운명의 식히는대로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6년동안 의 悲波慘浪에 孤獨하고 弱한 이한몸을 흘피웠더니 맛참내 가부틀 언덕을 찾지 못하고, 종래까지 慘境을 헤매엿다⁵²⁾.

결국 영은에겐 죽음밖에 다른 해결책이 전혀 없었으므로, 영은이 패배주의적 사고를 보인다고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런데 위 예문에서도 드러나듯 작품 곳곳에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개입되어 있다. 서술자의 개입은 위 예문에서처럼 창기로까지 떨어진 영은의 가련함을 더욱 실감나고 찡찡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작품의 형상화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현상윤의 소설을 살펴보았는데, 주제면, 묘사면, 구성면에 있어서 신소설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면에서 살펴보면, 이인적을 비롯한 신소설 작가들의 정치서설, 나아가서 이광수의 소설에서처럼 개화계몽을 생경하게 노출시키는 설교의 문학이 아니며, 그 구성법에 있어서도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가 아닌 서두에 사건이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 나타날 장면이 나오거나,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작품의 결말에 있어서 고대소설은 물론 일부의 신소설까지도 천편일률적

52) 「청류벽」, 『학지광』 10호, p.56.

인 해피엔드이지만 「한의 일생」 「박명」 등은 주인공들이 비극적 최후를 마치고 있다.

또한 현상윤의 소설에서는 작가의 사상면에서 피력되었듯이 실력양성론의 소설화로 볼 수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그가 '자기비판의식'을 가지고 식민지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본 결과 이룩된 소설세계로 인식된다.

현상윤 소설의 주인공들은 범속한 인물들로서 현실을 낭만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으며 당대 환경과의 갈등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고 팽팽하게 대결해 나가는 적극적 인물 유형이다. 여주인공의 자살로 귀결된 「청류벽」에서조차 그것은 굴복이나 타협이 아니라 작품의 논리 전개에 의한 필연적인 귀결이다. 현상윤의 소설에서는 일제의 폭정에 의해 한 개인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당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얼마나 왜곡시키는, 남성 위주의 사회가 빚어내는 사회적 횡포가 한 여인의 일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주려 하였다는 측면에서 반제 반봉건적 의미를 지니며, 비판적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등장인물들의 사회 전체에 대한 인식이 구조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그 대안이 마련되기 어려운 한계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 양건식의 소설

(1) 생애와 거사불교운동

주로 梁白華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양건식은 우리 문학사에서, 특히 소설사에서 잊혀진 익명의 존재였다. 그가 활자화된 모습으로 지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3살이었던 1912년 12월 26일이었다. 그는 이 날 경성 중부 박동(수송동) 각황사 포교당에서 거행된 석가 세존 성도 기념식에서 이능화와 함께⁵³⁾ 찬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경력은 불명확하다. 다만 '1889년 5월 경성 탑동 출생, 한성관립학교⁵⁴⁾를 나온 뒤 각지로 다닌 유학, 관리생활 일시⁵⁵⁾라는 단편적인 이력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능화와 양건식이 중심이 되어 벌인 거사불교운동⁵⁶⁾이란 어떤 것인가.

거사불교운동은 문화적 계몽운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건식의 경우는 거사불교운동에 참여한 다른 거사들의 작업과 대비되는 바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양건식은 단순한 계몽작업에 머물지 않고 이론작업을 펼쳐나간다. 그는 불교를 재해석함으로써 불교 이념이 식민지 조선을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임을 주장한다. 좀 더 자세히 거사불교운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난 후 친일적인 정치승인 圓宗의 종정 李晦光은 일본불교 曹洞宗과 굴욕적인 연합맹약을 체결한다. 이는 조선 500년간 억불 정책에 의해 갖가지 탄압을 받아온 불교가 일본에 의해 도성출입의 자유를 얻고 활로를 찾기 시작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어쨌든 이 연합맹약으로 우리 불교계는 뿌리째 뒤흔들리게 되고 이러한 사실에 반발해 한용운은 1911년 박한영,

53) 이능화는 거사불교운동의 중심인물로서, 양건식과는 계속 작업을 같이 하게 된다.

54) 구한말에는 官立漢城外國語學校, 官立漢城師範學校 등은 있었지만 한성관립학교라는 학교는 없었다. 아마도 양건식이 다닌 학교는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일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중국문학작품과 평론 등을 번역 소개한 점과 그가 한때 북경 평민대학에 유학한 점 등으로 보아, 그가 아마도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중에서 한어 학교에 다녔을 것이 분명하다.

55) 「삼천리」 67호, 1935.1.1.

56) 거사란 출신가문이 홀쭉하고 상당한 재산을 가진 인물로써, 出家생활이 아닌 在家생활을 하면서 항상 수도에 정진하며 여러가지 종교적인 의무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단순히 불교의 外護에 그치지 않고 持戒修行하며 불법의 대의를 廣宣하고 실업에 힘써 산업을 일구며 자선 사업을 통한 사회개량에까지 그 뜻을 두고 있다.

陳震應 등과 함께 송광사에서 임제종을 설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교계는 북의 원종(각황사), 남의 임제종(범어사)으로 서로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1911년 朝鮮總督府寺刹令을 반포한 일본이 친체제적인 원종을 부정하는 임제종을 인가할 리 없었다. 이들은 결국 승복하게 되고 양쪽의 주지들이 모여 원종과 임제종의 대립은 ‘本院 過去의 件’이라고 하며 원종과 임제종은 ‘朝鮮禪敎兩宗’이라 결정 짓는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갈등은 해소되는데, 이에 따라 京城府에서는 원종 임제종 두 종무원의 문폐철거를 명령한다. 임제종의 문폐철거는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과 개량주의적이고 소극적인 개혁의 두 방법론 중 전자가 현실에 의해 좌절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불교계는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출구로 모색하게 된 것이 바로 거사불교운동이다. 즉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여 종단을 새롭게 구성한 불교계가 ‘時俗上 浮華浪蕩의 習을 참회하고 淸淨心을 發하여 불교를 實心으로 신앙하는 자와 信心이 견고하고 願력이 廣大한 자는 在家 出家와 若男 若女를 불문하고’ 그 모두를 수용하면서 자체 정지작업으로 마련한 것이 이 거사불교운동이다. 거사불교운동은 조직을 통한 실천행위와 잡지를 통한 언어문자를 통하여 불교계몽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는데, 이 거사불교운동이 조직화된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조선불교진흥회의 기관지인 「불교진흥회월보」의 창간을 기점으로 해서이다.

양건식은 불교진흥회의 전임서기와 불교진흥회의 기관지인 「불교진흥회월보」와 「조선불교계」, 「조선불교총보」의 기자로 있으면서 「석사자상」 「미의몽」 「귀거래」 등의 소설과 「西哲 康德 格治 學說」(1-7호), 「述夢鎖言」(4호), 「因明學概說」(8-9호), 「佛敎의 五大特徵」(8호) 「佛敎라는 것은 如何한 者인가」 등의 학술논문을 번역·발표하는 등 상당히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그런데 이 세 잡지는 모두 거사불교운동의 중심인 이능화가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되어 발간하였으며, 여기에서 1910년대 거사불교운동의 구심점을 이루는 중

요인사들이 필진이 되어 대중 포교는 물론, 불교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객관화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유학과 불교, 서양의 철학 등 학설을 자세히 소개하고 비교 분석하는 이론구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는가 하면 민속학적인 관심과 중국문학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행하고 있다.

결국 양건식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점하에 있는 조선이 現下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불교를 제시하고, 불교를 재해석함으로써 불교가 어떤 철학, 어떤 세계관보다도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現下 상태를 타파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이는 불교에서 반제적 지향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자면 제국주의의 논리이자 당시 계몽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사회진화론을 필경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둘 때 단순히 조선불교의 새로운 좌표와 이에 대한 실천강령을 천명하는 데 함몰되지 않고 대사회적인 자각과 함께 국가와 민족을 찾을 수 있는 이념들을 제공한 거사불교운동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양건식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거사불교운동은 그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세력이 일제 비호 아래 밀착되어 영입되면서 무비판적이고 친체제적인 활동을 보인 점이 그 커다란 원인이라면, 신채호나 한용운의 경우에서처럼 철저한 제국주의 비판이론으로 발전 시키지 못한 점 또한 그들의 노력을 역사의 지평으로 끌어 올리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에 영입한 사실만 강조하고서는 거사불교운동의 정신사적 의미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당시 대부분들의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을 추수하면서 서구의 근대를 이상시하고 서구의 문물과 문명개화를 역설했던 데 반해 일제강점하의 갖가지 폭압 속에서도 불교를 재건하고, 불교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동일성을 찾으려 했으며, 불교를 재해석함으로써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념들을 제공한 거사불교운동자들의 노력은 이제 더 이상 폄하될 수 없는

것이다. 거사불교운동의 중심인물인 이능화가 외국어 공부를 하다가 합방이 되자 불교연구에 전념하고 곧 한국학의 근대를 준비한 거성이 된 사실, 그리고 불교연구에서 출발한 권상로가 나중에는 역사·문학 등 국학분야로 연구의 폭을 넓혀 가면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낸 예에서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한편 양건식의 경우 거사불교운동과 연결되어 있어 여러 가지 중대성을 내포한다. 뒤에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그는 사회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틀로써 전통사상 중 하나인 불교를 재해석하여 제시한다. 외래사상의 영향하에서가 아니라 '전통사상'에서 반제의 논리를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불교사상에서 반제적 논리를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양건식이 갖는 이러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⁵⁷⁾.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양건식의 「슬픈 모순」을 비판적 사실주의를 구현한 작품으로 보면서, 비판적 사실주의의 문학전통이 20년대 프로문학으로 계승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편협성에 경도되어 작품해석이 경직되어 있는 만큼, 북한의 문학사를 비판적으로 검토 수용해야 할 것이다.

(2) 양건식의 문학관

양건식이 우리 학계에 소개된 것은 1976년 이석호⁵⁸⁾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그것은 '중국문학의 轉信者', '中華劇 연구자요, 번역자'로서 중국문학에 관계된 것이었지 한국문학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양건식은 1910년대 누구보다 못지 않게 단편소설을 의욕적으로 발표한 소설가였고, 「춘원의 소설을 환영하

57) 박재연·김영복 편, 『양백화문집 1』, 지양사, 1988.

고재석, 「백화 양건식 문학연구 1」,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9.

58) 이석호, 「국문학 전신자로서의 양백화」 연세논총 13, 1976.

노라」⁵⁹⁾의 평론과 우리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합평회에서 활약한 평론가이기도 했다. 일종의 소설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 「춘원의 소설을 환영하노라」는 최초의 세계적인 근대문학론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이광수의 「문학이란 何오」도 따를 수 없는 치밀하고 일관된 체계를 가졌다⁶⁰⁾고 평가된다. 그리고 「조선문단」시절 우리 근대문학사에 처음으로 시도된 합평회에서 염상섭, 현진건, 나도향, 이광수, 김기진 등과 정규멤버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 1914년 이능화, 장지연, 이명철 등과 함께 설립한 불교진흥회에서 활약한 菊如居士이기도 했다. 1919년 이후에는 중국의 문학혁명운동과 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된 郭沫若의 희곡을 번역 소개 연구한 중국문학연구자이기도 했으며, 「노라」(영창서관, 1912) 「젊은 베르텔의 悲惱」(매일신보, 1923) 등을 번역한 선구적인 번역문학가이기도 했다.

그가 남긴 소설 중 특히 「石獅子像」, 「迷의 夢」, 「슬픈 矛盾」, 「悟!」 등의 1910년대 단편소설들은 우리 소설사에서 매우 시사적인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어 남다른 주목을 요한다. 특히 「석사자상」은 사회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슬픈 모순」은 지식인의 고뇌와 실천문제를 내면세계의 풍부한 묘사와 함께 전개하고 있어 의미가 깊으며, 1920년대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선구로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우선 그는 초기 작품에서부터 하층민, 민중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인다. 지게꾼, 막별이 노동자, 극빈층 등은 그가 즐겨 다루는 소재이다. 그의 소설에는 당대의 하층민, 민중이 가난에 몸서리치며 살아 가는 모습이 깊은 동정의 시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가난에 대한 인식이 주인공의 성격발전과 함께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창출된 새로운 인간유형이다. 작가는 이러한 새로

59) 매일신보, 1916. 12. 28~29.

60) 이선영, 「한국근대문학비평연구」, 『한국근대비평사』, 세계, 1989. pp.118~122.

운 인간유형으로 하여금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받도록 전개시키고 있어 비판적 사실주의의 세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거사불교운동은 진정한 근대화의 가치를 불교에서 찾으려 했던 일종의 문화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식민지 현실과 유착되었던 불교계에 무비판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써 역사의 지평에서 소외되어 버렸다. 그러나 합방 후의 무단 정치라는 폭압과 언론기본법에 의한 검열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낙후된 불교를 재건하고 문화적 전통과 민족적 동일성을 찾기 위해서는 체제지향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삶이란 끊임없는 관계의 연속이며 역사는 획일적인 의미의 단위로 재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관계의 총합이다. 그리고 근대화란 수단의 합리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합리화의 증진에 의해서도 특징지워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거사불교운동은 식민지라는 현실과 불교라는 종교 또는 경험적 현실과 초월적 이상 사이에서 어떻게 웅전했는가라는 역사적 의미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불교의 정신사적 의미와 거사불교운동의 문화사적 의의 및 문학사상적 의미라는 중첩된 문제를 실제로 느끼며 삶을 경영했던 양건식이 이루어 낸 소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양건식의 문학세계

양건식이 거사 국여로서 가장 의욕적으로 활약했던 시기는 대개 1915년부터 1918년까지로 볼 수 있다. 그는 3·1운동을 전후하여 점차 발표지면을 다양하게 전환하면서 문인 백화로 활약하게 된다. 이 기간에 쓰여진 작품의 하나가 오늘날 관심을 끌고 있는 「슬픈 모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물론 그가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불교진흥회월보」에 발표한 그의 초기 단편소설들은 여전히 논의의 사각지대에 묻혀있다.

그러면 우선 이 글에서는 양건식이 3·1운동이전까지 발표한 소설을 중심으로 그가 형상화하려 했던 의미와 문학적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석사자상」은 「불교진흥회월보」 1호 (1915. 3.)에 발표한 첫 소설로 현상윤의 「한의 일생」, 「뽕박」과 함께 뛰어난 구성력을 보여주는 秀作이다.

「석사자상」의 주인공 김재창은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로써, 독력으로 고군분투한 결과 자수성가하여 입신양명에 성공한다. 그러한 만큼 그는 자신의 성공과 입신양명에 대한 자부심 또한 높다.

．．．．．학문이나 수행을 하는 데도 獨力이요 입신을 하는 것도 내 힘이라. 남에게 의식을 구한 일도 없으며 남의 힘을 빈 일도 없고 오늘날 나의 이 처지는 나의 분투한 결과라. 이로 보면 나야말로 참-- 獨立獨行하는 사람이지 . . . 61)

그러나 위에서 보듯 이러한 성공 이면에는 깊은 고아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의 고아의식은 그를 자수성가하여 입신양명케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배금주의자로 만든다. 주인공의 ‘재물’에 대한 신앙은 주위에 널려있는 재물을 자기 소유로 못하는 약자에 대한 경멸과 함께 이기주의로 확산되며 이것은 곧 그 자신만의 主意를 필연적으로 형성하기에 이른다.

．．．．．사람되어 가지고는 이르는 곳마다 온 세상이 모두 돈이니 이것을 찾아 쓰는데 무슨 상관 있누! 그런데 없다고 하는 것은 제 재물 제가 못 찾아 쓰는 한 번번치 못한 약자라. 약자라는 것은 생존상에 적당치 못한 물건이니 자연 명멸하는 수밖에 무슨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오.

그러기에 나는 자선도 아니하고 보시도 아니하여 남을 위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결단코 아니할 결심이오. 받지 않는 동시에

61) 박재연·김영복 편, 「양백화 문집」, 지양사, 1988. p.137.

또 주지도 아니한 것이 이것이 내 主意라⁶²⁾

약자는 생존상 적당치 못하고 명멸하게 마련이라는 주인공의 主意는 바로 사회진화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진화론은 원래 「종의 기원」을 발표한 다아윈의 생물진화론을 스펜서가 사회진화론에 대입시켜 만든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생존경쟁, 우생열패, 적자생존의 원리가 인간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이자 사회진보의 원동력이며, 사회의 강자인 지배층의 지배, 나아가 세계의 강자인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힘의 논리여서 인종주의 제국주의의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자본주의로의 발전을 합리화하는 사상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저항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 이론은 계급적 분화의 과정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의 각 부분들이 지배 질서에 순응하고 조화를 잘 이뤄야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계급투쟁론을 부정하고 계급조화론을 주장하게 된다. 말 할 것도 없이 이 이론은 자본주의 모순을 호도하고 부르조아적 지배정서를 정당화하는 논리였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사회진화론은 계몽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된 이념으로 초기 개화사상에 이미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유길준의 「경쟁론」과 「서유견문」, 윤치호의 「윤치호의 일기」, 서재필의 「독립신문」 논설 등에는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개화사상가들의 견해가 강력히 피력되어 있다. 또한 계몽운동 사상가들에게 미친 영향도 매우 커서 1900년대에 이르면 이 이론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다. 계몽기의 애국지사들은 국권상실의 위기속에서 우생열패,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서 파생한 일제의 침략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민족주의로 대응하면서 점진론적 부국강병책과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했다. 그들

62) 박재연·김영복 편, 앞의 글, p.137.

이 역설한 문명개화, 역사교육, 민족산업진흥, 지도적인 인재양성, 국민실력배양 등은 이 진화론을 배경으로 파생된 것이다. 1900년대 개화자강파 계통의 인사와 일본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대한자강회, 신민회, 서북학회 등 각종 학회들의 사상적 골격은 바로 이 사회진화론이었다.

당시 한국은 일제와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는 사상으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였다. 우승열패, 적자생존이라는 사회진화론적 원칙을 계몽운동으로 연결하였으며, 계몽운동은 생존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민족주의운동, 근대화운동은 허구에 불과하다. 이는 제국주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자가 힘의 역량을 축적하여 진화하는 동안 강자의 진화는 강력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더욱 가속적으로 촉진되어 약자는 여전히 강자에 의해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계몽운동가들은 민중을 '愚民'으로 인식하여 계몽되어야만 될 존재로만 파악하고, 이들 민중이 주체가 되는 어떤 변혁운동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민족내부의 계급모순을 은폐하였으며, 국권회복의 방법을 오직 외부적인 모순관계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 글들은 모두 사회진화가 되면 국권이 회복되어 독립할 수 있고, 막 열강에 합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 약자 상태인 조선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에 대해 별다른 자각을 보이지 않는다.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당시 상황에서 피식민지 국민이 제국주의 이념의 기반인 사회진화론 사상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곧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다. 조선이 스스로 강자가 되지 못했으므로, 즉 제국주의 국가의 대열에 끼지 못했으므로 제국주의에 먹힐 수 밖에 없다는 논리에 순응하는 패배적 민족주의의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나아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침탈을 선망하고 제국주의 계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노력마저 보이게 되며, 제국주의에 투항해 일본이 침략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하는 지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식민지 지식인인 김재창 역시 이와 대동소이하다. 그는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믿고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의 논리가 패배주의에 속한 다는 것을 미처 자각하지 못한 주인공 김재창이 아내와 함께 산책하다가 석사자 앞에 이르러서는 그가 부르짖던 주의와 모순되는 행동을 한다. 그는 “양철통을 앞에 놓고 오르르 떨면서 끓어 앉았는데 자세히 본즉 두손이 모조리 손가락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마치 약국의 막자 같아 대단히 참혹한 형상”을 한 거지에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라고 건네 준 오십전짜리 은전을 ‘무의식적으로’ 던져 준다. 50전이면 당시로는 적은 돈이 아니다. 물론 자발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기는 하다. 그러나 자선무효론, 보시무효론의 이기주의적 배금사상을 가진 그가 그렇게도 경멸하던 거지에게 50전을 준 이 행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는 주인공의 관념적 허구성을 노출시킨 장면일 뿐 아니라 주인공이 신봉해 마지 않던 그 이념이 무의식적으로 그 극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그가 도덕적 선, 인도주의에 호소하고 있어 윤리적 심정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 아이러니컬하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사회제도를 객관적으로 비판한 결과 도출된 논리 또는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제반 모순의 척결방식을 염두에 둔 과학적 논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양심의 차원에서의 해결 및 극복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개인적 양심 차원이나 윤리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 아님은 명약관화하다. 사회진화론 신봉자들이 당시 조선이 식민지 국가로 전락한 후 일본 제국주의에 투항했거나 아나키스트로 전향해 나아간 사실은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필연적인 과제에 봉착했던 증거이다. 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신봉하던 이념이 극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느끼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관리국 앞까지 한 몸이 되어온 그 남녀 두 사람은 얼마간

묵묵히 있다가 김재창은 무슨 생각을 하였던지 돈 주던 곳을 다시 돌아다 보니 사람은 희미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말없는 석사 자상만 엄연히 높았더라⁶³⁾.

10년대 단편소설로써는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된 이 결말 부분에서 ‘말없이 엄연히 높은’ 석사자상은 대안을 모색하던 주인공에게 일말의 시사를 던져준다. ‘무슨 생각을 하였던지 주던 곳을 다시 되돌아 봄’으로써 이념과 행동의 괴리를 통한 자신의 관념의 허구성을 깨달은 주인공에게 불교적 의미망을 내포한 석사자상은 대안제시의 가능성을 지닌 상징적 동가물로 부각된다. 결국 석사자상이란 다시 찾아야 할 또는 새로이 획득해야 할 이념의 총체성이다. 양건식은 불교를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념틀로써 제기한 바 있다. 여기서 불교적 의미망의 석사자상을 제시함으로써 작가는 자신의 세계관을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구조를 근본구조로 가지며 이 대결을 거치면서 총체성을 찾아 헤매는 영혼의 여행이 근대적 의미의 소설이라면, 석사자상은 세계에 대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자아(김재창의 입신양명, 생존경쟁의 우승자)가 부정적 가치의 약자인 거지를 보고 결국은 그와 자기가 같은 식민지 백성이라는 동일성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자아에 대한 세계의 상대적 우위) 석사자상이라는 추구해야 할 총체성을 발견함으로써 세계가 극복될 수 있음을 드러낸 형태의 소설이다.

「석사자상」은 왜곡된 근대적 가치관을 삶의 이데올로기로 삼은 식민지의 지식인 김재창의 행위를 통해 국권을 상실한 나라의 지식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개념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문제적 작품이다. 그러므로 ‘석사자상’은 이 작품의 소재인 동시에 주제가 된다. 작가가 석사자상이라는 공간적 표제를 제목으로 삼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만일 이 작품이 문학사에

63) 박재연·김영복 편, 위의 글, p.138.

서 재평가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근대인 특히 식민지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완결된 구조로 형상화한 지식인 소설이자 사실주의 작품⁶⁴⁾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迷의 夢」을 살펴보기로 한다.

창창한 새벽밤에 달빛은 몽롱하다.

우연히 잠을 깨인 박태정이는 괴이한 그림자가 미닫이를 스치고 지나감을 보았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유리구멍으로 눈을 부비고 내어다 본 안방 쪽에서 어떠한 자가 이 평화한 집안에 쥐를 엿보는 고양이 걸음으로 가만가만히 저의 아버지가 쓰시는 귀중한 물품을 담은 철계를 옆에 끼고 나아간다. . . . 꿈인가? 아니라 잘못 봄인가? 아니라 이 되는 말인가. 이르기를 자선가라 덕망가라 하여 이 세상에서 적지아니한 환영을 받는 저 김일오는 깊은 밤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가만히 물건을 집어가는도다. 가련타! 태정이가 마음을 허락하고 몸을 던져 극히 사모하는 정임의 아버지는 천하고도 미운 도적이었더라.

주인공 박태정은 김정임과 사랑하는 사이이다. 어느날 박태정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은 다름아닌 정임의 아버지 김일오였다. 김일오는 당시 자선가요 덕망가로 평판이 높던 자이다. 다음날 태정은 김일오를 찾아가 항변하고 인연을 끊으려 한다. 그러나 김일오는 사죄하기보다는 오히려 태정에게 자신의 주의를 따르라고 독촉한다.

“ . . . 자네는 놀라지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기왕 알았으니

64)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조남현은 지식인 소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① 지식인이 주요 인물로 나타날 것 ② 현실적 욕구와 이상사이의 갈등이 메인 플롯이 되어야 할 것 ③ 지식인의 본질과 역능 등에 관한 사유와 각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 이라고 전제한 바 있다. 그는 개화기소설에 나타난 당시 지식인들은 대체로 지식인으로서의 참된 고뇌와 현실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건식의 소설은 애국계몽기(1904~1910)와 1920년대를 잇는 1910년대의 소설사적 공간에서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을 다룬 본격적인 의미의 지식인소설로 볼 수 있다.

말이지 십여년 이래로 가지고 있던 주의라 나는 일조에 버리려 아니하네. 이 세상이 이러한 것이요, 이 세상 사람이 이러한 것이라. 자네는 부질없이 그러지 말고 나의 주의를 좇게.”

이 말을 듣고 분기탱천한 태정은 법적인 제재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정임에게 사실을 고백한 후 헤어질 것을 천명한다. 정임이 놀라서 아버지에게 경위를 묻자 이때야 김일오는 자신에게 딸이라는 인연이 있었음을 깨우치고 자신이 고수하던 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심한 갈등을 보인다. 결국 딸의 존재는 김일로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한계를 느끼고 태정에게 사과한 후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이야기한다.

그는 원래 정직하고 선량한 데다 가세도 넉넉하여 끊임없이 찾아드는 빈객과 식객을 보살피마지 않았다. 성심성의껏 응하다보니 어느덧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마져 지게 된다. 결국 그는 낮에는 자선가요 덕망가로 자처하지만, 밤에는 도적인 이중인격자인 셈이다.

“... 자네는 나의 행위를 용서치 못할 죄악이라 하겠지마는 아! 자네는 저 백일 대도 중에서 의기양양하게 드러내놓고 공연히 도적질하는 것을 못 보았나? 구구히 제물을 도적질하다가 죄짓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적은 것이라. 자네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큰 도적을 못 보았나? 저 남의 명예를 도적하는 자는 어떠한가? 저 남의 성명을 도적하는 어떠한가? 저 남의 권리를 도적하는 자는 어떠한가? 저 남의 공을 도적하는 자는 어떠한가? 그자들의 어떠한 자는 그 죄를 장엄함에 무고한 피로 하는데, 사람들은 그 피를 향해 무수히 갈채하며, 그 자들의 어떤 자는 그 죄를 자랑함에 무수한 주검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하여 성의를 표하니, 자네는 이러한 무리를 무엇이라 하나? 그러나 여보시게 나는 일찌기 이 세상에서 회롱되었는 고로 돌이켜 이 세상을 회롱하였을 뿐이라⁶⁵⁾.

65) 『불교진흥회월보』 3호, 1915. 5, p.68.

이 작품이 갖는 일면의 진실성은 현실인식의 내용이 당대의 어리숙한 계몽주의 작가들의 것과는 달리 그 시대의 현실 분위기와 들어 맞는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당대 현실에 대한 하나의 고발로 보여지는 그의 이 사회비판 발언은 자신의 모순을 합리화하는 또 다른 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비리로 가득찬 세계와 일제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함의한다고도 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인공 김일오가 민족 전체의 삶의 의미나 외부적 모순을 자신의 실존적 문제와 연결지어 통일적으로 고찰하고 변증법적으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파멸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슬픈 모순」은 「반도시론」 제 10호(1918. 2)에 발표된 110매 가량의 단편 소설이다. 모순에 찬 불합리한 사회현실을 체험하는 좌절한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방황, 그리고 자신을 제약하고 있는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주인공의 모습을 1인칭 시점으로 탁월하게 형상화한 지식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즉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냉철한 비판인식, 노동자 학대 사건에 대한 분노가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세부 묘사의 풍부성과 진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의 전형으로 간주되며 또한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발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비록 몇몇 부분이 다소 은폐된 채 서술되고는 있지만 당대 지식인들이 지녔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현상 및 시대적 고뇌가 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서술되고 있으며, 10년대 소설에서 더러 지적되고 있는 구조의 불균형도 거의 엿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인공 ‘나’가 아침에 일어나서의 고민을 그린 첫부분과 주인공이 거리의 모순된 현실을 목격하는 두번째 부분, 그리고 주인공이 백화의 편지를 받고 새로이 돌파구를 여는 마지막 부분이 그것이다.

주인공 ‘나’는 야학운동을 하다 중단당하고 ‘어쩐지 낙오된 듯한 생각’으

로 남들이 '나의 어리석음을 조소하는 듯하여' '불쾌하'고 현재로서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서재에 꼭 들어 앉은 채로 멀거니 서안을 대하고 앉았' 곤 하는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이다. "용틀임을 하여 몽몽하게 방중에 자욱한" 푸른 담배 연기는 바로 주인공의 내면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생활에 대한 권태와 모순된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출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작품의 '1인칭 시점'은 주인공의 답답한 내면세계를 찡찡하게 그려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갑갑증으로 질식감이 절정에 달하여 거리로 뛰쳐 나왔을 때조차 그에게는 갈 곳이 없다.

무론 나는 목적이 있어서 나오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발가는 대로 설렁설렁 성밀 길로 이마장을 나아갔다. 어느덧 정차 정유장에 나왔다. 마침 오는 광희문행의 전차에 올랐다. 타기는 탔으나 어디로 갈 생각인지 나는 모른다. . . . 아무 얼굴을 보아도 모두 바쁜 듯한 모양이 그 보는 눈에도 역연히 보이나 나와 같은 한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생각한 즉 현실세계에서 별안간 천장만장 깊은 곳으로 떨어진 듯하여 고독의 적막을 통절하게 느끼겠다⁶⁶⁾.

그는 왜 고독의 적막을 느끼며 답답해 하는가.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 있어서 자아가 철저히 패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적상실의 상태에 놓여 출로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식민지 지식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일본인과의 차별대우, 고등교육 기회의 박탈로 인해 고통받았으며, 그의 사회적 처지가 매우 불안정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그는 '사회에 대한 약한 나의 불평의 소리'와 '현재의 생활의 무의미한 것'을 느끼는 이성적 비판자이면서도 절망과 고민속에 침윤되지 않고 끊임없는 탈출과 모색을 시도함으로써 적극적 주인공으로 탈바꿈한다. 방안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간단한 디테일에서도

66) 양문규, 『창작과 비평』, 1990, 봄호, p.225.

이러한 점은 드러난다. 우리는 한 디테일의 비진실성이 작품 전체의 진실성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방안의 디테일은 그의 고민이 지닌 ‘지향점’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향후의 주인공의 ‘실천 제시’의 과제를 암시하는 ‘예리한 시츄에이션’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애독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학대받는 사람들」과 벽에 걸어둔 노동복을 입은 노국문호 막심 고리키의 반신상 초상화는 바로 이러한 주인공의 모색과 탐색을 반영한다. 이러한 점은 자조적 피해망상증을 드러내고 있는 「뽕박」의 주인공이나, 자신의 무기력함의 원인을 분석해내지 못한 채 방황만 하고 있는 여타 10년대 단편소설의 주인공과 다른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학대받는 사람들」은 19세기 중반의 러시아의 어느 도시(페테르스부르크)의 뒷골목과 빈민굴의 어둡고 비참한 밑바닥 생활을 묘사해 냄으로써 무서운 사회적 불공평을 들추어 내었으며, 또 도시빈민이 얼마나 학대받고 짓밟히는가를 고발하여 당대 평론가로부터 ‘강렬한 현실의식’을 보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그리고 고리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로서, 러시아에서 혁명적 위기가 성숙해가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농민층 내부에서 혁명적 운동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하였으며, 왜 지금까지 생활해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해 낸 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최초로 전형화한 작가로 평가된다.

주인공 ‘나’가 「학대받는 사람들」이란 소설을 애독한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 및 조선인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점으로 조선을 식민지 상태로 몰아 넣은 일제는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등을 통해 수탈을 위한 경제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본질적 변환기를 맞게 된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경작원을 상실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작농으로 전락한다. 소작지마저 얻지 못할 경우 화전민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조선내에 공업이 어느정도 발전하게 되

면서 노동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였고 도시 농촌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 군중도 대량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던 상태였었다. 주인공이 소설 「학대 받는 사람들」을 읽고 괴로워한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의 이러한 상황과 연맥되는 것이다.

식민지화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역사적 환경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의 출현을 동반한다. 원래 전형적 환경 그 자체가 벌써 인간 성격을 형성시키는 당대 시대의 역사적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주인공 '나'는 새로운 역사적 환경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다. 여기서 주인공의 성격과 운명은 그대로 식민지 사회에서 전형적 환경의 영향의 소산이며, 주인공의 모든 정신세계의 운동 역시 전형적 환경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소설에서 우리는 주인공 '나'와 같이 깊숙한 내면세계로의 침투와 폭넓은 개방을 보이는 성격창조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유형은 1910년대에 들어 형성된 새로운 인간 유형이며, 주낙양의 「마울집」, 현상윤의 「뽕박」, 걱정업슬이의 「절교의 서한」 등의 소설에서도 등장하는 인간유형이다.

주인공 '나'가 새롭게 형성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출로를 찾아 모색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추구하는 바의 모색이 용이할 리 없다. 갑갑증이 나서 거리로 뛰쳐 나왔을 때도 주인공은 '나와 같은 약자는 대낮에 이런 활동천지를 남과 같이 내로라 하고 다닐 자격이 없다'고까지 자신을 학대 조소한다. 이러한 조소 학대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자책감으로 보인다.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가 고리키의 초상화가 눈에 띄기만해도 '별안간 정신이 아뜩하여 폭 주저 앉는' 것은 주인공의 비판의식과 실천미비에 따른 자책감의 강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다시말하자면 이러한 사실을 주인공이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실천문제와 인과적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인식이 자신 및 사회에 대한 무의미함을 자

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 및 그 해결책 모색으로 확대 전개 되어 나가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이 과정 속에서 주인공의 성격발전도 아울러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갑갑증이 나서 발길 닿는대로 돌아 다니다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 네가지 사건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인식의 발전을 가져 오게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 안동을 향하고 가는데 마치 그편으로 상궁같은 나이
근 쉼이나 되는 비만한 부인이 그 뚱뚱한 기름 흐르는 얼굴에 분
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새아씨 볼 쥐어지르게 바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색주단으로 전신을 감고 아주 점잖이 내려 오나 그 몸집과
그 의복과 그 색채! 참 보기도 싫게 조화도 못되었다. 그 눈--젊은
계집같이 윤태가 있는 그 눈은 늘 육냄새에 기갈들린 증거다. 이러
한 계집 처 놓고 모두 비밀히 자식빨 되는 남첩을 두고 밖에 나와
서는 점잔을 빼는 것들이었다. 어--망측한 것! 옆으로 지나 갈 때
에 침을 뱉었다. 나의 신경은 더우기 과민하게 되어 조그마한 아
이놈이 저만한 지게에 제 힘에 과한 짐을 지고 오는 것을 보면 열
이 나고 인력거부가 주머니에서 칼표 꺼내는 것을 보면 열이 난다
67).

양건식은 「석사자상」 「미의 몽」 등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하층민 및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줄기차게 보여왔다. 그러나 위 작품들에서는 하층민이 갖는 가난과 고통에 대한 근본적 분석은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 이르면 가난과 부가,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이 대비되어 인식되기에 이르며, 무산계급에 대한 동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산계급에 대한 증오는 그와 정비례해서 나타난다. 이는 주인공이 가난이나 부를 한 개인의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인공의 고민이

67) 양문규, 「창작과 비평」, 위의 글, p.226.

‘나’ 개인의 고민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시대적인 고민과 고통으로 확대된 것임을 말한다. “육냄새에 기갈 들린” 유한부인이 지나 갈 때 침을 뱉는 행위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지게꾼을 보고 열이 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인력거부가 주머니에서 “칼표” 꺼내는 것을 보고 열이 나는 것은 그가 사회구조적 모순에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님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 어떤 파출소 안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박승을 치고 순사보에게 심하게 심문당하는 험수룩한 노동자를 목격하게 된다. 그 노동자는 하이칼라가 있는 술집에 들어 갔다가 노동자라고 욕설하며 쫓아내려 하자 핫김에 개수통을 던져 의거리장을 파손한 죄로 잡혀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사회의 큰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순사, 순사보들이 노동자를 징계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묘안은 없지만 주지하다시피 순사보는 식민지 통치세력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미 세 경우의 사건을 체험한 주인공은 이 사건을 거치면서 모순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식민지 통치세력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실 밑에서 억울하게 억압받고 학대당하는 노동자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낀다. 결국 주인공은 네가지 체험과정을 통해, 즉 일상사의 매개과정을 거쳐 이 사회의 온갖 모순이 불합리한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에 있음을 알게 되는 발전적 면모를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성격창조는 대부분의 신소설에서와 같이 작가에 의해 미리 개념적으로 주어졌거나 기성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 발전되는 성격형상인 것이다.

나는 픽 웃고 생각하였다. . . . (중략) . . . 다만 관복을 입고 칼이 채워진 까닭에 순사보는 막벌이꾼을 징계하는 권리와 자격이 있다. 모순도 이쯤되면 심하다. 참으로 기묘한 대조다⁶⁸⁾.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다시 자기자신에게로 화살을 돌린다.

68) 양문규, 위의 글, p.228.

그러나 나도 생활의 압박으로 나의 진실성과 모순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 생활의 광야에 서서 본 즉 내게 지금까지 꾸던 꿈은 시시각각으로 깨어져 감을 볼 수 있다. 그저 다만 이상만 그리던 숫버이 마음은 랭랭한 현실의 장벽에 다닥쳐 부서져 비참한 잔해만 남았다. . . . 이러한 생활은 슬프고도 더러운 것이다. 나는 나의 유일무이한 진실성이 이와 같이 점점 깎이여 가고 모순이 됨을 충심으로 슬퍼하는 터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기를 시작하며 다시 아까 그 불안과 고통이 일어나서 한참은 몽환경에 방황하였다⁶⁹⁾.

다시 몽환경에 빠져 들게 된 주인공은 그러나 '백화' 편지를 받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백화는 야학에 관련된 '나'의 친구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의견충돌을 보이고 가출한 후 주인공에게 유서를 보낸다. '나'는 친구 '백화'의 편지를 보고 드디어 자신에게 부여된 '지금-여기에서의' 임무를 발견한다. 아직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획득하지 못해 몽환경에 빠져 있는 상태였으나 이제 주인공은 사회적 실천과 개인적 실천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사회적 실천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한 인간의 개인적 실천이 확보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작가는 바로 '자기 자신'(백화)을 현실의 슬픈 모순을 고발하는 매개인물로 등장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 자신의 필명을 가진 '또 다른 나'를 등장 시켜 그로 하여금 현실 모순에 부딪혀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게 한 후, 주인공 '나'는 친구의 죽음이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체험한 몇몇 사건들을 통해 얻은 귀중한 인식에 되비쳐 주인공으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주인공은 실천으로써 백화의 집을 찾아 나선다. 소설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만 나는 (어떤 이유로) 백화의 집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처지였었다. 백화가 야학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야학운동 혐의거나 백화를 야학에 소개시킨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백화 부자 간의 의견대립에 자신이 직접

69) 양문규, 위의 글, p.228.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인공은 비로소 실천의 첫 돌파구를 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백화의 편지에 드러난 그의 진실은 주인공 '나'로 하여금 모색과 실천의 문을 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그리고 친구 백화의 진실은 곧 나의 진실인 셈이다.

백화의 죽음은 사회구조적 모순이 개인의 가족애의 모순의 형태로 환치되어 나타난 것으로 소극적이기는 하나 봉건성을 타파하고 가족제도의 모순에 대해 죽음으로까지 철저한 저항을 보이는 백화의 진실 앞에서 그는 더 이상의 방향은 불가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형님! 나는 불행히 무식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십구년 동안 이 세상 거친 물결에 빠져 헤적거리다가 원한을 머금고 지금 구천으로 돌아 가나이다.

형님!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에 무식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은 아닌가 하나이다. 나의 이렇게 죽게된 사정은 아마 형님도 짐작 하실 듯 하옵니다. 사람의 부모가 되거든 자식을 가르쳐 사회에 나서게 만들고 자식이 되거든 부모의 교양을 받다가 사회에 나서거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어 보내도록 활동할 것이올시다. 나는 이것이 부모 자식간에 당연히 행할 의무인가 하나이다. 형님! 나는 형님이 다 아실 듯하여 말 아니 하나이다. 그러나 다만 아버님이 야속한 것은 아직도 기력이 강장하신 어른이 날마다 아무것도 아니하시며 나에게 집안 생활의 전부를 떠맡기시고 아침 저녁으로 안 벌어들었다고 야단을 치십니다. 형님! 아버님이 나를 사회에 나서게 못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칠팔년 야학에 다니며 나의 실력을 보충하려 하였나이다. 십년동안 어린 나이로 집안 살림을 하여 가며 밤에 이것 하는 것도 못하게 하시며 역정만 내시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삽나이다.

형님! 그런데 나는 형님에게 나의妹子 동순이를 드리옵니다. 요사이 집안 눈치를 본 즉 동순을 모 귀족의 첩으로 주려고 주선하는 모양이외다. 그러나 당자 동순이는 泥中の蓮花같이 한사하고 불응하더이다⁷⁰⁾.

70) 양문규, 위의 글, p.232.

백화의 유서 전문이다. 백화는 봉건타파를 부르짖으며 봉건잔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해결책으로 삼고 있는 비판의 근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유교적 색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모순에 대한 백화의 인식이 불철저하다는 것을 드러냄과 아울러 백화의 전망부재 상태를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백화의 자살은 결코 '낭만적인 도피'가 아니다. 주인공의 '실천'을 위해서 백화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백화의 자살로 인해 작품 전반에 팽팽하던 긴장감이 이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편지가 전문 소개되다보니 다소 긴장감이 완화되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하나, 절을 달리해 처리한 마지막 반전부분은 다소 이완된 긴장감을 다시 반복시켜주는 결말처리로써, 이 부분에 이르면 작품의 짜임은 다시 그 탄탄한 긴밀성을 확보하게 된다. 반전처리에 능한 작가인 만큼 '나'로 하여금 실천의 돌파구를 여는 마지막 부분의 강렬한 인상을 위해 취해진 장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유서가 전문으로 소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유서 내용에서 철저하게 밝혀진다. 아버지에 대한 백화의 비판은 아버지 세대에 대한 세대 갈등을 내포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하며 돈만 벌어 오라고 하는 돈의 노예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의 의미는 사뭇 그 의미의 복잡성을 내포한다. 백화 부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식 교육은 등한시 하는 이기주의자이며, 돈 때문에 딸을 귀족의 첩으로 주려하는 등 가족윤리를 훼손·파괴한다. 그는 더 이상 가정공동체 내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 '돈'은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돈이 스스로 유발하는 효과 때문에 목적이 된 경우에 불과하다. 백화의 가정을 단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작가는 사회에 존재하고 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백화 부와 같은 유형과 돈으로 인간을 매매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 귀족의 타락한 양상을 비판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도록 소설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결국 백화의 죽음은 나와 백화가 함께 추구해 온 야학과 관련된 실천운동이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의 부정적 국면인 비인간적이고도 타락한 면모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로써 우리는 작가가 백화의 죽음과 관련된 장면을 통해 반봉건적 반자본주의적 기치를 내걸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상에서 양건식의 작품을 분석해 보았다. 「석사자상」에서는 사회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틀로서 불교적 의미망을 지닌 ‘석사자상’이 제시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보편성 있는 논리로서 사회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나키즘과 상호부조론이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양건식이 재해석한 불교는 바로 그 아나키즘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의 몽」에서는 비리와 모순으로 가득찬 허위세계가 고발된다. 선악의 개념이 시대의 변천과 개개인의 인격에 따라 변이되어 나타나고, 각 개인들이 그 속에서 좌절해 나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다. 식민지 지식인을 중심으로 실천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슬픈 모순」에서는 약자에 대한 동정에 강자·유한계급에 대한 혐오가 대비되면서, 방황으로 점철되어있던 주인공이 거리에서 체험한 몇몇 사건들을 통해 발전적 면모를 보이고 친구 배화의 죽음을 매개로 실천의 제일보를 내딛게 되는 과정을 깊은 내면세계에서의 고민 토로와 함께 1인칭 시점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 작품의 주인공인 ‘김재창’ ‘김일오’ ‘나’는 모두 새로운 역사적 환경으로 인하여 창출된 새로운 인간유형이다. 여기서는 전형적 성격을 형성시키는 데 필요한 전형적 환경, 즉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가 개개인의 인간관계, 사회경제적 정황 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상호 침투하고 있는가가 집약된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석사자상」 「슬픈 모순」에 보이는 주인공의 성격적 발전은 미리 주어진 일정한 성격의 주인공을 그린 이전의 1900년대 소설에서 한층 달라진 면모이며, 아울러 이들 주인공들은 가난을 사회구조적 차원에

서 바라보고 온갖 비리와 모순으로 가득찬 허위세계를 날카롭게 고발하는 등 비판주의 정신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을 극복하고 개조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적극적 주인공의 범주에 놓인다. 따라서 이들 작품들은 비판적 사실주의의 양상을 보인 소설로 규정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투쟁장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능성제시’, 또는 ‘출구마련’이라는 투쟁의 드러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석사자상」에서는 사회진화론의 신봉자 김재창이 그것의 극복가능성을 제시받는 장면에서, 「슬픈 모순」에서는 ‘나’가 방황을 끝내고 실천의 제일보를 내딛게 되는 장면에서 작품이 종결되어 실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항거하고 투쟁하는 적극적 주인공의 모습은 1910년대 소설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

양건식의 세계관은 작품을 통해서도 그대로 형상화된다. 즉 「석사자상」 이후 「미의 몽」 「슬픈 모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소설을 통해 식민지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고발한다. 그러나 단순히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기’를 통한 주인공의 성격 발전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비판주의 정신을 갖고 사회의 모순을 제도적 차원에서 관찰하고 묘사한다. 그 결과 「석사자상」에서는 사회진화론의 신봉자였던 김재창에 의해 사회진화론을 극복할 수 있는 이념틀로서 불교적 의미망을 지닌 ‘석사자상’이 제시되었으며, 「슬픈 모순」에서는 방황으로 일관하던 주인공이 거리에서 체험한 몇몇 사건과 친구 백화의 죽음을 매개로 실천의 제일보를 내딛게 된다.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주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적극적 주인공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양건식은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로 규정 될 수 있다. 우리 소설사에서 이러한 적극적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은 각 계급의 계급의식이 철저히 의식화되고 인식되는 1920년대에 들어서 가능하다. 1910년대는 자본주의 사회의 초기적 성장기로서

자본주의의 출발점에 해당된다. 자본주의의 미성숙에 제약받아 노동자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직화 의식화의 수준도 아직 즉자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모순의 극대화 또한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고, 역사 발전의 긍정적 계기가 사회적 수준에 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인 전망을 제약하는 사유가 된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대안제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점이 오히려 구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 총체성으로 전락하거나 허위의식이 된다. 이상 논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양건식의 소설은 총체성의 형상화가 '아직 불가능'한 단계에 해당된다.

IV.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의 의의

1.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 소설의 문학적 가치

양건식과 함께 비판적인 신지식층 작가의 계열로 함께 거론되는 작가는 현상윤이며, 현상윤의 작품인 「뽕박」은 식민지 현실에 괴로워하는 지식인의 내면적인 고뇌를 그리고 있다하여 「슬픈 모순」과 같은 계열로 분류된다. 또한 「절교의 서한」은 북한의 문학사에서 현상윤의 「한의 일생」과 함께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소설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 세 작품을 비교·고찰함으로써 1910년대의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의 문학사적 위치를 조명해 본다.

걱정업슬이가 쓴 「절교의 서한」의 주인공 '영수'는 몇푼 못되는 월급으로 다섯 식구를 먹여살리는 가장이다. 그러는 가운데 아내가 죽어 위로받을 곳 하나 없고, 두 아이는 남과 같이 튼튼하지도 못하며,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있다. 더구나 경제적 도움을 청하였던 친구에게서는 거절의 편지가 온다. 그 친구는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영수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영수는 그 친구에게 '절교의 서한'을 쓴다는 것이 작품의 내용이다. 영수가 친구에게 쓴 편지는 금전이 제왕의 제왕이라는 말은 이미 들었지만 그대가 그러하다니 그대를 위하여 동정의 기도를 하겠으니 부디 금전의 종이 될지며, 이후 나는 그대와 영원히 소매를 나누겠다는 것으로 제목이 곧 이 작품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어 지난날의 의리까지 저버리는 세태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또한 이는 생활상의 고통이 극도에 다다른 영수로 하여금 "이 사회의 공변되지 못함을 크게 부르짖지 아니치

못하게” 하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제가 표출되는 방식이며 또한 그 주제가 어느 만큼의 무게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가난, 아내의 죽음, 몸이 남만 같이 튼튼하지 않은 네 살난 아들과 백일도 지나지 않은 딸, 병석에 누운 어머니 등은 한 인간을 절망적인 심정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다. 이는 영수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환경이며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영수를 괴롭혀왔던 문제들이며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친구의 배신은 영수의 분노를 촉발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즉 작품내에서 실제로 일어난 핵심적인 사건은 친구의 배신인 것이다. 먼저 영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시·공간구조로 재구조되지 않고 매우 무차별적이고 나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수를 둘러싸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맞물려 작품은 매우 암울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분위기일 뿐이다. 영수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절망적인 것이며, 또한 그 절망의 내용만을 따져본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지만 소설로서 재구조되어 있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줄기차게 비가 오는 어두운 밤과 함께 단지 절망적인 분위기만을 전달하고 있다. 영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충분히 현실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적인 시간과 영수라는 구체적인 한 개인의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간이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겠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으로만 그 고통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형식상의 문제, 즉 소설로서 재구조화된 정도가 약하다는 것은 단지 소설을 쓰는 기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작가의식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영수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친구의 배신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영수에게 마지막 타격을 가한 것이다. 그로 인해 영수의 분노는 자신을 괴롭히는 구체적인 현실로 향하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배신으로 향하게 된다. 때문에 영수의 분노에 찬 편지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만다. 황금의 노예가 된 친구를 위해 동정의 기도를 올리겠다는 것은 타락한 친구에 대한 비난이며 영수의 자존심의 표출이겠으나 결국은 몇 시간 안가서 스러질 오기일 뿐이다. 또한 영원히 소매를 나누겠다는 발언 역시 이미 배신한 친구에게는 전혀 소용없는 소리이다. 영수가 친구의 엽서를 찢어버린 것처럼 친구 역시 영수의 편지를 찢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다른 것은 영수는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며 친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절교의 서한」에서 열거된 절망적인 상황들은 분위기로 전달될 뿐이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인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은 작중 현실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뽕박」은 「절교의 서한」과 비교한다면 절망의 내용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그 시작부터 모호하다.

이즘은 病人가 보다. 그러나 무엇으로든지 病일 이유는 없다. 신선한 공기가 맥힘없이 들어오고 영롱한 광선이 가림없이 비치고 새는 울고 꽃은 웃고 샘은 맑고 산은 아름다운데-- 조금도 病일 까닭은 없다. 그러나 病은 病이로다. 나제는 먹는 밥이 달지 안이 하고 밤에는 잠이 편치 못하며 얼굴은 파래고 살은 깎기며 피는 왕성치 못하고 힘줄은 신축이 자유롭지 못하고 반가운 친구를 만나도 우습이 發치 아니하고 남에게 稱譽를 바다도 깃쁨이 나오지 아니한다⁷¹⁾.

‘나’는 세상의 추이를 대강은 짐작하고, 농사상의 지식도 약간은 있고, 슬픈 자를 동정할 줄 아는 눈물이 있어 적선을 위해 한 푼 돈을 아끼지 아니하며, 재주도 있으며 주위에서 너 같으면 부러울 게 없겠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웃집 사람들도 자기를 보고 비웃는 것 같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자신을 뚫어질듯이 쳐다보며, 나무나 별, 대문기둥도 나를 보고 웃는다고 생각한다. 그

71) 현상윤, 『청춘』 8, 1917.6, p.252.

비난의 내용은 “이놈아! 약한 놈아! 하기에 게르고 배호기에 게른 놈아!” 하는 것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나’가 이러한 강박관념을 느끼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지식인인 ‘나’와 주위 사람들과의 괴리이다. ‘나’에게는 지향하는 바가 있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 지식인의 의미는 곧 그만큼 공부를 하였으니 이제 ‘判任官’이 되는 정도는 아주 쉬울 것이며, ‘신중한 금줄을 두루고 길죽한 검을’ 느끼는 것, 세속적인 출세가 쉬운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자신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이해시킬 방도가 전혀 없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하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의식있는 식민지 지식인의 공통된 고뇌일 수 있다. ‘나’는 주위의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강박관념의 첫째 이유라면 두번째 이유는 조금 다르다. 두번째 이유는 노동하지 않는 자로서의 부끄러움이다.

그렇게 할 일 없이 강박관념에 젖어 무료하게 배회하다가 ‘나’는 석양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농군의 무리를 만난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하기를 그들은 원종일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단란하게 저녁을 먹을 것이며 그렇게 사는 즐거움은 부자도 못 빼앗는 것이며, 귀한 이도 못 빼앗는 것이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야 이놈아 우리는 우리 니마에 흐르는 땀을 먹는다소니 조금이나 미안이나 고통이 있을 소나 . . . 어리고 철업는 놈아 무엇이 엇째-- 권리니 의무니 도덕이니 평등이니 자유이니 무엇이 엇째 나는 다 모른다.--72)

72) 현상윤, 『반도시론』 10호, 1918.2.

이에 이르러 ‘나’는 몸 피할 곳이 전혀 없으며 ‘약하고 게른 놈아’ 하는 질책이 사방에서 들리고 이러한 질책과 자신을 못 살게 구는 핍박이 서두에서 서술한 자신의 이유없는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품에 나타난 주위 사람들의 형상이다. 작품에 나타난 주위 사람들은 곧 식민지 시대 민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민중들의 모습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모습은 양심적으로 살려는 지식인의 고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노동하는 자의 건강함을 지니고 허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질타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민중들의 모습이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둘로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며, 두 모습 모두 작가의 자의식에 왜곡되어 찌그러진 형상을 취하고 있다. 얼핏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 「핍박」은 이 점에서 「슬픈 모순」에 못 미친다. 물론 1910년대라는 역사적 시기를 고려하거나 단편이라는 형식을 생각할 때 민중의 모습이 긍정적이거나 총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지식인의 모습은 실제로 어느 곳에도 몸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핍박」에 서술되고 있는 고뇌들이 「절교의 서한」보다는 사실적으로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의식으로 인해 일정하게 한계지워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작품 말미에 서술된 ‘아아 핍박! 못 살게 구는 핍박!’이라는 ‘나’의 절규는 갈 곳이 없는 지식인의 자의식의 표출이라는 수준을 넘지 못하며 작품 전체가 이 수준을 넘지 못한다.

「슬픈 모순」의 주인공인 ‘나’ 역시 「핍박」의 주인공과 비슷하다.

새벽 다 밝을 림시에 어수선 산란한 꿈을 꾸고 인해 깨여 자리
속에서 두치적거리다가 일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들 수 없이 무거워

무엇이 위에서 내리 누르는 갈에서 심기가 깨끗치 못한 나는 아무
것도 하기가 싫어 서재 즉 침방에 꼭 들어앉은 채로 멀거니 책상
을 대하고 앉았다.

‘나’ 역시 갑갑증이 나서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한다. 어디를 보아도 바쁜
듯이 보이는 것이 나와 같이 한가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에 고독의 절망을 통절
하게 느낀다. 천박하고 비만한 나이 많은 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며, 조그마한
아이놈이 제 힘에 과한 짐을 지고 오는 것을 보면 가슴이 뒤틀리게 열이 나고,
모두가 자신보다는 강해 보여 불안과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친구를 만나 백화가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생각
이 든다. 집에 돌아오니 백화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는데 자신은 불행히 무식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돈만 벌어오라 하고 실력을 보충하기 위해 야학에
다니는 것까지 못하게 하여 죽으니 집안에서 첩으로 보내려고 하는 자신의 동
생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이다. 이에 나는 삼사일 후에 친구와 함께 발길을
할 수 없었던 백화의 집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뽕박」과 달리 구체적인 사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차이가 나지만 보다 근
본적인 차이는 ‘나’라는 인물의 차이이다. 「뽕박」과 동일하게 「슬픈 모순」도
주인공이 배회하는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만 주위환경이 묘사된다. 물론 주인공
인 ‘나’의 의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환경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에서 ‘나’
라는 인물의 형상이 중요해지는데 「뽕박」의 주인공이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
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음에도 자의식이 보다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면, 「슬
픈 모순」의 ‘나’의 형상은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매개로 부족함
이 없다. 말하자면, 객관적인 현실이 어느 정도로 치밀하게 파악되고 소설적으
로 재구성되어 묘사되었는가에 따라 ‘나’라는 인물의 형상이 지식인의 자의식의
표출에 그치는가 혹은 당대 식민지 현실을 지식인의 고뇌를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돌아다니다가 하이칼라가 있는 술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술집 주인과 싸움이 나서 파출소에 끌려 온 막벌이꾼의 모습을 보고 생각한다.

나는 픽 웃고 생각하였다. 사람의 향상심과 자각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병문꾼 대 순사보가 자각이 없고 향상심이 없어서 그 지위에 만족함은 다 일반이다. 그 사이에 별로이 큰 차등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관복을 입고 칼을 찬 까닭에 순사보는 막벌이꾼을 징계하는 권리와 자격이 있다. 모순도 이쯤 되면 심하다. 참으로 기묘한 대조다⁷³⁾.

위의 서술에서 보이듯이 「뽕박」과 동일하게 「슬픈 모순」의 ‘나’도 민중의 역사적인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를 작가 개인의 한계나 작품의 한계로 돌릴 수는 없다. 1910년대 상황에서 그러한 인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뽕박」이나 「슬픈 모순」이나 민중에 대한 과학적인 시각의 정도가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슬픈 모순」이 당대의 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월등한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은 자의식으로 왜곡된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즉 자의식이 끼어들 틈이 없이 치밀하게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밀한 현실에 대한 묘사로 인해 백화의 유서를 읽고 난 후 그동안 백화의 집에 출입할 수 없었던 ‘나’가 “그 후 삼사일 후에 나는 영환이와 작반하여 백화의 집을 찾았다”는 문장으로 처리된 작품의 결말은 주인공의 이제까지의 무기력한 삶과는 다른 삶에 대한 결단으로 볼 수 있는 근거와 무게를 지니게 된다.

1910년대의 「뽕박」과 「슬픈 모순」은 현실도피적이거나 자의적 낙관으로 점철된 당대의 여타의 소설들과 달리, 비록 주인공의 패배적이고 자조적인 일면이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식민지 현실의 관찰을 통해 객관적인 자기인식에 도

73) 양건식, 「뽕박」, 『창작과 비평』, 1990, p.229.

달하는 지식인의 체험세계가 형상화되고 있어, 이들은 10년대 소설사에서 근대 소설적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다.

2. 1920년대 소설과의 연계

1910년대 단편소설들은 질·양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대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작가의식의 변모 및 전통과 서구 영향의 혼재 속에 새로운 단편소설 양식의 모색과정이 드러난다. 게다가 사실주의는, 사회와 개인 및 민족의 삶이 영위되는 현장으로서의 일제치하라는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우리 모두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가장 적절하였던 문학적 방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소설은 작가들의 현실인식이 가장 치열하게 작용한 사실주의 계열의 소설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1910년대의 소설을 해석함에 있어 사실주의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삶의 문제를 주요 논지로 삼았다. 사실주의란 결국 개인과 사회현실과의 관계를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 곧 작가의 세계관을 의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설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어떻게든 맞물려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910년대 소설을 내용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일제의 무단정치가 문화정치로 전환되어 간 정치적 상황은 문학 외적인 면에 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문학 내적인 문제는 작가들의 문학에 대한 의식이 발전적으로 변화해 간 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제가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문화정치하에서는 사실상 민족적 현실을 직시하기에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작가들이 온전히 표현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문학이 현실적 삶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학에 대한 작가들의 책임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민

족적 자존과 자립의지, 반일제 등 이념적 투쟁이 시대적 열망으로 되어있던 상황에서 작가에게 부과되는 문제는 식민지 현실의 비판과 민족적 열망을 어떻게 조화있게 작품 속에서 형상화시키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소설과 1920년대 사실주의소설에 있어서 작가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정적 현실관’이었다. 정치·사회적인 억압과 부자유는 참담하고 불행한 민족의 현실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비관적이고도 절망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비관적인 현실인식은 일제하의 억압과 정치적 모순에서 기인하는데 피압박 민족 내지 약자로서의 무기력한 작가는 주로 지식인이나 학생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작품에서 드러난다. 이들은 현실과의 정면적인 대결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고, 고뇌하고, 좌절한다.

1910년 이후, 우리 문학은 개화기부터 노정되어 오던 극단적 두 흐름을 와해·발전시키지 못한 채, 일방적인 단절을 강요당함으로써 왜곡된 문학사적 전환을 겪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시대, 완전히 통속소설로 전락해 버린 장편 양식의 신소설들, 사회와 유리된 채 자기 독백에만 그친 서정시들에 비해 현상윤·양건식 등의 단편들에서 다양한 양식 변이를 통해, 좀 더 진지한 현실의식을 구조화할 수 있는 장르에로 개조·정립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억압된 상황에서나마 현실의 구체적 형상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 과정을 보이고 있다. 前時期, 新小說의 부정적 계승양식을 보이는 것, 서구적 의미의 단편화를 지향하는 것, 그 둘이 혼효되어 나타나는 형태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그러한 양식의 차이는 당시 정립되지 못한 다양한 작가의 현실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물론 앞 시대 개화기 두 문학의 화해적 결합일 수는 없었지만, 외세 순응의 일방적인 통속화로 나아간 동시대 장편 신소설에 비해, 미약하나마

단편 양식의 시도로써 웅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20년대 우리 서사문학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죽음의식 및 비극적 세계관, 단정적 서술형 어미의 정착, 장면과 묘사의 강화, ‘돌연한 서두’ 및 냉담하고 고압적인 결말, 1인칭 고백체의 정립 등이 이미 이 시대 단편 속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특징은 개화기라 통칭되는 시대의 소설 속에서도 파악될 수 있으나, 저항과 순응이라는 극단화된 문학적 흐름 속에서 보다 일체의 저항이 금지된 1910년대의 침묵 속에서 문학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웅전양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1920년대 초반 단편의 특징은 거의 연애 문제와 결부되거나 혹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면 갈등에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대 단편들에서 막연한 번민 및 절망감으로 드러냈던 내면세계를 좀 더 구체적인 경험사실과 결부시키고, 심리묘사의 확대를 꾀했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임에 틀림없으나, 여전히 개인적인 구체성을 결한 채 또 하나의 패턴으로 상투화 돼버림으로써 창조적 변용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10년대 단편에서 다룬 유학생 지식인의 막연한 번민이 자유연애의 구체적 내용으로 나아가지 않고 더욱 애매하고 암담한 번민으로 계승된 염상섭의 초기 단편들은 고백체 서사양식이 단지 관념과 추상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데에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계승의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슬픈 모순」의 첫 장면과 흡사한 분위기를 풍기는 「암야」의 경우, 오히려 사회적 모순의 구체적 묘사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던 전자보다 한 걸음 후퇴하여 관념적 애매성으로 더욱 함몰해 들어간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곧 1910년대 소설에서 보여주었듯이 작가의 전망부재 및 외부의 압력, 특히 유학생 지식인들의 방황의식, 그리고 염상섭에게서 드러나듯이 일본 근대문학인 고백체 서사양식의 수용 등이 그대로 연장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루고 있는 고민과 압박의 정체는 구체적일 수 없었다. 이처럼 1910년대 후반의 단편세계가 그

대로 연장된 이러한 단편들의 미완적 서사성은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구체화된 사건과 결합하거나 보다 심화된 자의식 세계로 나가면서 1930년대부터 등장한 본격적인 심리소설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상윤·양건식 소설 등의 1910년대 단편소설들은 구한말까지 이어져오던 전통서사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편소설 양식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1920년대 문학 및, 식민지시대 문학의 새롭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하여 1910년대는 단순히 전대와 구별되고 후대를 이어주는 교량이거나 문학사적 공백기 혹은 애국계몽기의 일부로 취급되던 위치에서 벗어나 식민지시대 문학의 출발 및 한국 근대 단편소설 형성의 두 방향이 결정된 시기로서 보다 중요한 독자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은 1910년대 단편소설들의 유동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의 소설사에서 조명되지 못하였던 현상윤과 양건식 작품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실주의의 시각으로 고찰한 것이다.했다.

1910년대는 타의에 의해 사상적·문화적 혼란을 겪어야 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문학적 흐름도 정당한 발전으로 계승되지 못한 채 커다란 굴절과 변모를 일으키게 된다. 그에 따라 전대 서사문학의 두가지 주요 흐름이었던 이념 우위의 서사체와 신소설이 창조력을 잃고, 신문·잡지 및 서구문학의 영향이 복합되면서 단편적인 삶을 짧은 규모에 담아낼 수 있는 단편소설 양식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 시기 또 하나의 흐름인 내면지향 소설들은 전통서사양식의 압력보다 서구 및 일본 근대 소설의 고백체 양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출발한 것으로써 외면서사보다 내면서사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는 새로운 소설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면서사의 확대양상은 작가의 개인적 자아가 확대되면서 세계에 대한 전지적, 보편적 안목보다 개별적·내적 인식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작가의식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와 개인과의 갈등을 개인의 내밀한 측면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의식의 변이를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대 사회에 굴복하지 않고 팽팽하게 대결하는 식민지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방황의식과 전망부재의 암담한 절망감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시기의 단편들은 시대상황에 대응하는 작가의식의 변모와 전통 및 서구영향의 복합적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 다양한 양식유형을 보여줌으로써, 미숙한 형태나마 전통서사와 1920년대 이후의 단편소설들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전대문학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식민지 시대 문학의 첫 출발을 보여 준다

는 점에서 주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편 1910년대 문학을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전단계로 규정하여 1910년대 문학이 지닌 성격을 문학사의 연속성을 해명하려 한 북한에서의 문학연구에 촉발되어 국내 학계에서도 몇몇 연구가 있기도 한데 아직은 미흡한 상태다.

1910년대에 비판적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이 하나의 작품군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응시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려 했던 비판적 신지식층이라는 하나의 계층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판적 신지식층에 의해 추구된 예리한 현실비판 정신은 비판적 사실주의 경향을 띤 하나의 작품군을 이루어 내게 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1910년대 당시 새롭게 고조되고 있던 민족운동상의 민족적 방향모색과도 연결되어 있다.

비판적 신지식층에 속하는 작가로 현상윤과 양건식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유학의 체계를 후자는 불교의 체계를 발전적으로 해석하여 식민지에 대응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삼으려 하였다.

현상윤은 「핍박」 「한의 일생」 「청류벽」 「재봉춘」을 통해 자신이 주장한 바 실력양성론의 소설화 경향을 보여준다. 이 소설들을 통해 작가는 자본주의 모순을 폭로하는가 하면, 남성의 사회적 횡포를 고발하고, 질곡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당대 사회에 굴복하지 않고 팽팽하게 대결하는 식민지 지식인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재봉춘」에서는 식민지 사회의 억압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처참히 짓밟고 훼손시키는가를 꺾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비판적 신지식층의 작가로 가장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작가는 양건식인데, 양건식의 소설 「슬픈 모순」에 대한 관심은 북한 학계에서 먼저 표명되었다. 양건식은 거사불교운동을 이끈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이론구축작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전통적 가치체계인 불교를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불교가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는 이데올로기임을 제시하려 하였고,

불교를 통해 제국주의의 논리인 사회진화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그의 소설 「석사자상」 「슬픈 모순」 등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들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한 면이 보이는데 이러한 사회현실의 비판정신은 주관적 개화의지 속에서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으로 신문명에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소설 작가들과 구별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비판정신은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의 첫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특징은 가난한 인간형상을 창조하여 빈궁문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1920년대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선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제와 성격면에서 가난한 최하층 인물에 대하여 관심이 돌려지고 있었으며, 가난 때문에 생긴 비극적 처지의 인물을 동정하고 그들과의 연대감을 가지려는 노력이 표출되었다. 「한의 일생」의 윤상호, 「석사자상」의 김재창, 「청류벽」의 황석보는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왜곡된 인간상으로 비판되어진다. 「석사자상」 「미의 몽」에서는 주로 貧者에 대한 동정과 연대감이 묘사되고 있으며, 「슬픈 모순」에서는 貧·富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졌다.

세번째로는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실천제시의 인간상, 자각하고 저항하는 인간상이 형상화되었다. 「한의 일생」의 김춘원은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살인하고 자살하는 저항적 인간상이며 「석사자상」의 김재창과 「슬픈 모순」의 ‘나’는 자각하고 발전하는 적극적 인간상이다.

그리고 네번째는 현실과의 팽팽한 대결상태에 놓인 식민지 지식인의 갈등과 고뇌가 묘사되었는데, 「뽕박」과 「슬픈 모순」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들 지식인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떠한 해결점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으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들 식민지 지식인들의 방황은 결코 패배적이거나 자학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방황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소산인 것이며, 역사적 필연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소설의 특징을 분석·고찰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고찰을 통하여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와 작품들을 살펴보고, 1910년대의 단편소설이 지금까지 기존 문학사에서 취급되던 공백기나 애국계몽기가 아닌 하나의 중요한 문학사적 위치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같은 시기의 다른 작가와 작품들의 거론이 따라야 하고, 1910년대의 비판적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과 1920년대의 자연주의적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과의 구체적 연계 해명과 소설사 발전과정의 연속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하여 현상윤과 양건식의 사상적·양식적 특징을 대비·고찰이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박재연·김영복 편 『양백화문집 I』, 지양사, 1988.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 열사람, 1988.

반도시론 2권 2호

불교진흥회월보 1, 2, 3, 6, 7호.

이병천 편,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창작과 비평사, 1989.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청춘 2, 3, 4, 6, 7, 8호.

학지광 4, 10호.

2. 단행본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2』, 한길사, 1986.

김윤식·정호웅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문학과 비평사』, 1988.

김학동, 『문학의 해석』, 서강대출판부, 1988.

김현실, 『한국근대단편소설론』, 공동체, 1981.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연구』, 일지사, 1975.

송하춘, 『1920년대 한국소설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5.

송현호, 『한국근대소설론연구』, 국학자료원, 1990.

- 윤홍로, 『한국근대소설연구』, 일조각, 1981.
-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의 연구』, 일조각, 1975.
- 장사선, 『한국리얼리즘문학론』, 새문사, 1988.
-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한국문화연구소, 1973.
- ,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8.
- 주종연, 『한국소설의 향성』, 집문당, 1987.
- , 『한국근대단편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9.
-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비, 1986.
- 한점돌, 『한국근대소설의 정신사적 이해』, 국학자료원, 1993.
- , 『한국문학연구4』, 삼지원, 1985.
- 현상윤, 『조선유학사』, 민중서관, 1949.
- , 『조선사상사』, 한국사상연구소, 1972.
- 홍경표, 『한국근대소설작가 의식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4.
- G.루카치, 조정환 역, 『변혁기 러시아의 리얼리즘문학』, 동녘, 1986.
- 村上嘉隆, 유염하 역, 『계급사회와 예술』, 공동체, 1987.

3. 연구논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려대학 사람들』 4 현상윤, 1986.
- 고재석, 『양건식의 소설의 근대성과 반근대성』, 제8회 한국문학 학술회의 발표
요지,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8.
- , 『1910년대의 불교근대화운동과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10집,
동국대 한국문학 연구소, 1987.

- , 「백화양건식 문학연구 I」, 한국문학연구12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9.
- , 「한국근대문학의 불교 지성적 배경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89.
- 김기현, 「소성의 만필 ‘소고’」, 한국문학논고, 일조각, 1972.
- , 「신문학초기의 소설고」, 고대어문논집12집, 1970.
- , 「현상윤의 단편소설」, 문학과 지성 2권 2호, 문학과 지성사, 1972 겨울호.
- 김미경, 「1910년대 단편소설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90.
- 김복순, 「1910년대 단편소설연구—신지식층의 소설을 중심으로—」 연대 박사논문, 1990.
- 김학동, 「소성 현상윤론」, 어문학 27, 한국어문학회, 1972.
- , 「순성진학문론」, 『문학의 해석』, 서강대 출판부, 1988.
- 김현숙, 「1920년대 리얼리즘 소설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1.
- 김현실, 「현상윤의 단편소설」, 국어국문학 93호, 1985.
- ,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형성과정 및 구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9.
- 민현기, 「현상윤의 <뽕박>小考」, 『한국근대소설론』, 고양총서, 계명대, 1984.
- 양문규, 「1910년대 소설」, 『한국근대문학연구입문』, 한길사 1990.
- , 「슬픈모순과 191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문제」, 창작과 비평, 1990년 봄호.
- , 「1910년대 한국소설 연구—사회사적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연대 박사논문, 1990.
- 이동길, 「20세기 초기 단편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2.
- 이동하, 「1910년대 단편소설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 이동호, 「1910년대 단편에 나타난 현실의식의 양면성」, 영남어문학회 8집.

1981.

이정숙, 「몽몽생연구」, 국어교육 41호, 1982.

——, 「춘원 초기 단편소설에 대한 일고찰 - 1910년대 발표작을 중심으로-」,
민족사상 제 2집, 한성대 민족사상 연구소, 1984.

장광섭, 「한국근대단편소설연구—1910년대 및 1920년대 초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86.

조경미, 「현상윤 문학연구—1910년대 산문을 중심으로—」, 숙대석사논문. 1986.

최시한, 「현상윤의 장르의식」, 서강어문3, 서강어문학회, 1983. 10.

황패강, 「‘조선문학통사’의 분석적 고찰」, 국문학논집13, 단국대 국문학과.

한점돌, 「백악춘사 장용진론」, 호서대 논문집 3집, 1984.

——, 「춘원초기 단편의 소설사적 의의」, 호서대 논문집 4집, 1985.

ABSTRACT

CRITICAL REALISM NOVELS OF 1910S

—Novels of HYUN SANGYOON and YANG KUNSIK—

by Jung Jung Sook

This thesis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history of novels specially relating to the social progress in 1910s.

I don't mean that others had neglected the change of ages, but I'd like to refer the social backgrounds explain how the rapid social change and disorder made rethoric weak, and how the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magazines could form the short novels of 1910s.

The study of that age is usually confined to LEE KWANGSOO, JOO YOHAN whose works are accessible and that of each writer is superficial. Moreover, the study of works is poor and the uniqueness of Genre in many types of novels appeared in the early of 1910s is not explained sufficiently. I noticed the discovery of short novels of HYUN SANGYOON who is known as a historian. And I also observed that YANG KUNSIK wrote many short novels in 1910s. He was introduced us as 'a deliverer of Chinese literature' and 'a researcher and translater of Chinese play'. We can find the spiritual wander and isolation of a colonial intellectual in their works represents

critical realism.

I stated our history of novels from 1910s' New novel to the middle of 1920s at the point of relative and necessary view.

First of all, I did not look over the loss of our national rights, even if all of the novels of that time reflected the dark age, I tried to refer that they accepted hopelessness and turn there attention inside the individual. Put it concretely, the agony of an intellectual was expressed in HYUN SANGYOON's 「SUPPRESSION」 and YANG KUNSIK's 「THE SAD CONFLICT」. Furthermore, I emphasized that they showed the possibility to escape the Colony Chosun.

Thus, the short novels in 1910s are distinguished from the past and related to those of 1920s, and this made the stream of short novels incessant. I made it a opportunity to explain what anguish and thought the novels written after 1920s experienced.

The critical realism literature appeared in 1910s was fully developed. I assumed that the novels of 1910s took a role of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modern novels of 1920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vels of 1910s and 1920s was studied.